

碩士學位論文

『무지개』에 나타난 이원론적 세계관

指導教授 梁永洙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夫 俊

2006年 8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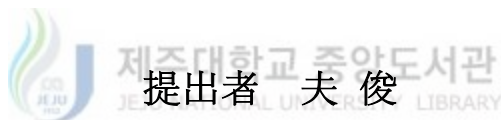
# 『무지개』에 나타난 이원론적 세계관

指導教授 梁永洙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4月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夫俊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6年 6月

審査委員長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 <국문초록>

### 『무지개』에 나타난 이원론적 세계관

夫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梁 永 洙

이 논문에서는 로렌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무지개』에서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를 문명과 자연, 정신과 본능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로렌스 문학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그를 생명주의자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현대문명의 과도한 주지주의와 과학주의가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무시하고 자연 본래의 원초적 생명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항해서 진실한 생명력에 근거한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대문명의 허점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러한 그의 생명주의 문학관은 이원론적인 측면에서 고찰할 때 보다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우주 만물은 두 개의 상반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반된 요소들이 갈등과 투쟁을 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이원론의 요체이다. 로렌스는 그의 에세이인 「토마스 하디 연구」에서 남성의지와 여성의지를 대립시키면서, 문명의 영역에 속하는 사랑과 빛, 변화 등을 남성의 원리로,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법칙, 어둠, 근원 등을 여성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관계는 상호융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임을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대립과 갈등을 통한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균형은 그의 문학작품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는데, 『무지개』에서도 개인이 겪게 되는 영과 육의 갈등에서부터, 남성성과 여성성 사이의 갈등과 조화 과정이 현대문명과 자연의 대립적 관계 속에서 깊이 있게 추적되고 있다.

로렌스의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녀관계는 자아의 성취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생명력이 있는 인간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나아가서 충족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하고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무지개』의 주인공들이 완전한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의 친밀감”(blood-intimacy)으로 상징되는 여성원리와 “존재 범위”(a range of being)의 확대로 상징되는 남성원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무지개』에서는 어느 누구도 이 두 조건을 성취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관계를 형성한다. 제 1세대의 탐과 리디아는 “피의 친밀감”의 측면에서는 창조적인 관계를 이루지만, “존재 범위”의 확대에 있어서는 마쉬농장을 벗어나지 못한다. 제 2세대의 애나는 마쉬농장 너머의 세계로 그녀의 경험을 넓히고자 월을 만나지만, 지나친 자아추구와 관능적인 사랑에 도취된 나머지 미지의 세계에 대한 모험을 포기하게 되고, 코스테이에서 안락하게 살아감으로써 “존재 범위”의 확대에 실패한다. 제 3세대의 어슐라는 외부세계에 대한 강인한 인상을 가져다 준 스크레벤스키를 만남으로써 존재의 범위를 확장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는 개인의 자아보다는 국가를 우선시 여기는 인물이어서 자아성취를 위해 노력하는 어슐라에게는 부족한 인물이다. 남성과 여성의 자아실현을 통한 생명력있는 인간관계의 실현은 3세대에 걸친 브랑웬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패하게 되지만,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환각의 상태로 바라본 무지개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룬 이상적인 인간관계를 이룰 수 있다는 재생의 서곡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현대문명의 과도한 지성편중과 기계문명이 오히려 인간 고유의 생명력을 파괴함으로써, 인간성의 황폐화를 조장하고 있다고 우려한 로렌스는 기계문명의 반생명주의 원리와 냉혹성을 파헤침으로서 시대적 비극을 부각시켰으며,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균형을 전제로 한 생명력이 있는 남녀관계가 현대문명의 병폐를 치유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상호간의 자아실현을 전제로 한 생명력이 넘치는 남녀관계의 실현은 단지 문학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실제 원리이고 나아가서 인생의 원리이기도 하다.

# 목 차

I. 서론	1
II. 생명주의적 이원론	6
III. 자연과 문명의 대립	13
IV. 남성성과 여성성의 갈등과 조화	28
III. 결론	52
Bibliography	55
Abstract	57

## I. 서론

로렌스(D.H. Lawrence, 1885-1930)는 현대 산업사회의 병폐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그의 문학작품에 투영하고자 노력했던 작가다. 그는 19세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달하게 된 산업화와 기계화된 문명이 오히려 인간의 정서적 불모성과 인간성 상실을 초래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생명력 있는 창조적 인간관계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로렌스가 생존시에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다가 사후에야 재평가되는 것은 이러한 시대를 예리하게 읽어내는 작가적 예지뿐만 아니라, 기계 문명 속에서 말살되어 가는 인간의 영혼을 구제하기 위하여 제시하는 그의 문학사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렌스 문학사상을 논함에 있어서 그를 생명주의자로 지칭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빅토리아 시대의 산업주의와 지성편중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인간은 물질적인 면에서는 역사상 전례 없는 풍요를 만끽하나, 본능적인 면에서는 하나의 죽은 기계처럼 생명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그는 보았고, 이러한 기계문명으로부터 서구사회를 구원하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현대문명의 과도한 주지주의와 과학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무시하고 자연 본래의 원초적 생명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는 비인간화, 비개성화의 경향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시대적 조류에 대항해서 진실한 생명력에 근거한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현대문명의 허점을 극복하고자 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생명주의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로렌스 자신이 “인생 그 자체가 이원적이다” (Life itself is dual)<sup>1)</sup>라고 주장하듯이,

문명, 정신, 사회의 방향으로 치우진 빅토리아 시대의 편향적인 생명관에 반기를 들어 자연, 육체, 개인의 가치를 복원하여 양대 세력간의 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의 독특한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다. 로렌스는 생명력의 발현이 남성과 여성의 만남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으며, 그 만남이 서로의 자아를 존중하는 독립적이면서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생명력은 배가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룰 때 인생은 감내할 만한 것이고, 정신과 육체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균형이 존재하고, 서로에 대한 자연스러운 상호존중감이 내재되어 있다.”<sup>2)</sup> 고 언급하면서, 인간 내면의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적 갈등과 균형의 중요성을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우주 만물은 두 개의 상반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반된 요소들이 갈등과 투쟁을 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룸으로써 보다 창조적이며 생명력이 넘치는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렌스는 「토마스 하디 연구」(Study of Thomas Hardy)에서 모든 사물에 존재하는 상반된 두 극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는 모든 생명체의 이원성이 진정한 관계를 설정하려면 대립되는 의지 즉, “활동에의 의지”(Will-to-Motion)와 “불활동에의 의지”(Will-to-Inertia)가 완전히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서 “활동에의 의지”를 남성원리로, “불활동에의 의지”를 여성원리로 구분하고 있고, 남성원리는 끊임없는 활동, 다양성과 변화를 나타내고 여성원리는 무한한 일체와 고정성, 그리고 본능을 나타낸다. 허프<sup>3)</sup>

1) D. H. Lawrence, *Reflections on the Death of a Porcupine and Other Essays*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63), p. 211.

2) A. A. H. Inglis, ed., *D.H. Lawrence: A Selection from Phoenix*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p. 334.

3) Graham Hough, *The Dark Sun: A Study of D. H. Lawrence* (Aylesbury: Compton Printing, 1965), p. 224.

(G. Hough) 역시 이원론의 주요 요소들을 대립적인 쌍으로 분류, 남성 원리는 밝고 적극적이고 밖으로 드러나는 정신의식을 그 속성으로 하고, 여성원리는 어둡고 소극적인 육체의 본능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는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갈등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태양과 달로 상징되는 우주적 질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띠는데, 이 중에서도 그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를 인간사의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여긴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남성과 여성의 관계이다. 남성과 여성, 여성과 여성, 부모와 아이 사이의 관계는 부차적인 것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관계는 영원히 변화할 것이고, 인간 삶의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이다. 4)



로렌스에 의하면 인간은 성에 의하여 구별되어 이원성을 이루기 때문에 각기 남성과 여성의 자질들이 끊임없이 투쟁하는 가운데 마침내 양자가 균형을 이루어 궁극적인 존재의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되는 것이 갈등과 투쟁인데, 로렌스는 그의 에세이 「왕관」(The Crown)에서 사자와 일각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자와 일각수는 왕관을 사이에 두고 패권을 차지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투쟁을 전개하지만, 그 투쟁은 단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투쟁이 아니라, 서로의 투쟁을 통해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투쟁이다. 만약 한 쪽이 승리하거나 포기한다면 그 순간에 균형은 깨어지고 사자와 일각수 모

4) D. H. Lawrence, "Morality and the Novel," in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 A. H. Ingli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1), p. 180.



두 존재이유를 상실하게 되어, 이는 곧 공동의 패배가 되는 것이다. 로렌스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대립관계를 무지개, 왕관, 별들의 평형(star-equilibrium)으로 비유하고 있으며, 이것들이 의미하는 양극성의 원리는 이원론의 밑바탕이 되고 있다. 로렌스의 작품의 양성관계가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정체되지 않고 역동성을 띠게 되는 것은 이러한 이원론적 요소의 끊임없는 갈등과 투쟁 그리고 균형의 과정을 전개하면서 가능한 것이다.

로렌스의 문학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남녀관계는 자아의 성취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생명력이 있는 인간이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고, 나아가서 충족된 삶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은, 진실하고 완전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다. 그는 편집자인 에드워드 가네트(Edward Garnett)에게 보낸 편지에서 종전의 소설에서와 같은 안정된 자아를 기대하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것은 다양한 상태로 나타나는 인간의 삶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공통된 한 요소를 뽑아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근본적인 생명력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즉, 다이아몬드나 숯검정은 서로 다른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탄소라는 공통된 물질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는 것인데, 그는 탄소 즉, 알려지지 않은 자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또 하나의 자아를 파악함으로써 인간은 의식을 넓힐 수 있고, 완전한 인간의 완성에 도달할 수가 있다고 보았다.

한편, 달레스키(H.M. Daleski)는 로렌스의 이원론이 기존의 이원론적 철학과 다른 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서로 상반된 두 극에서 형성되는 새로운 전체는 상호보완적이라고 설명하면서, 로렌스 문학에 있어서의 갈등은 곧 균형을 위한 대립관계임을 보여주고 있고, 플라톤의 이원론과 기독교적인 이원론은 정신의 절대적인 세계를 강조하면서 육체의 세계는 도외시하는 반면에 로렌스의 이원론은 정신과 육체가 대등한 관계라고 설명

하고 있다. 양영수 교수도 기독교와 로렌스의 이원론을 상호 비교하면서, “육체적인 감각과 본능은 기독교에서 볼 때는 죄악의 근본” 이지만, 로렌스의 세계관에서 볼 때에는 육체적인 본능은 “진정한 삶의 기쁨의 원천이고 세계인식의 핵심적인 방법”<sup>5)</sup>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극간의 대립과 갈등을 상호보완 · 상생조화로 발전시키는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전 작품에 걸쳐서 고루 나타나는데,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무지개』 (*The Rainbow*)에서도 그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깊이 침윤되어 있다고 할 수 있어서 로렌스가 주장하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토대로 그의 작품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를 위하여 본론에서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에 대하여 존재론적 에세이를 중심으로 살펴본 후, 작품 속에서 대립되고 있는 자연과 문명, 남과 여의 양극성을 살펴보고, 남성과 여성의 이상적인 관계를 위하여 로렌스가 제시하고 있는 이원론적인 인간관계를 3세대에 걸친 주인공들의 관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

5) 양 영 수,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7), p. 90.

## II. 생명주의적 이원론

로렌스 문학에 나타난 세계관의 기본구조는 생명주의적 이원론이라 할 수 있다. 우주 생명체는 두 개의 상반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반된 요소들이 갈등과 투쟁을 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이원론의 요체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생명적인 존재는 그 안에 대립되는 요소들의 상호투쟁관계를 포함하고, 이 대립과 갈등은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생명력이 있는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로렌스의 이원론적인 세계관은 소설보다는 존재론적 에세이인 「토마스 하디 연구」와 「왕관」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는 “모든 존재하는 사물에는 돌조차도 본성적으로 양 면을 가지고 있다”<sup>6)</sup>고 언급했고, “나는 두 개의 물결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고 있다... 나는 어둠과 빛의 두 가지 상반되는 물결의 투쟁과 화합으로 이루어져 있다”<sup>7)</sup>고 언급하며, 자신의 이원론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의 이원론적 견해는 「토마스 하디 연구」에서 특히 잘 드러난다.

법칙의 원리는 여성에게서 강하게 나타나고, 사랑의 원리는 남성에게서 나타난다. 모든 생명체에서 이동성과 변화성은 남성에게서 구현되고, 고정성과 보존성은 여성에게서 발견된다. 여성 안에서 남성은 그의 뿌리와 안식처를 발견하고, 남성 안에서 여성은 허물을 벗고 개화하는

---

6) D. H. Lawrence, *Reflections on the Death of Porcupine and Other Essays* (Sussex: Centaur Press, 1925), p. 183.

7) D. H. Lawrence, "The Crown," in *D. H. Lawrence: Phoenix II*, ed. Warren Robert and Harry T. Moore (London: Penguin Books, 1968), p. 377.

것이다. 여성은 뿌리처럼 아래쪽으로 향하여, 중심과 어둠 그리고 근원을 향하여 자라고, 남성은 나무줄기처럼 위를 향하여, 발견과 빛 그리고 극한(utterance)로 향하는 것이다. 8)

로렌스는 남성의지와 여성의지를 대립시키면서, 문명의 영역으로서의 사랑, 빛, 변화, 이동성 등을 남성의 원리로, 자연의 영역에 속하는 법칙, 어둠, 근원 등을 여성원리로 설명하고 있다. 즉, 남성원리는 밝고 적극적이고 변화하는 정신의식을 그 속성으로 하고, 여성원리는 어둡고, 정적이며, 육체적 본능을 그 속성으로 하고 있다. 허프(G. Hough)는 이원론의 주요 요소들을 상호 대립된 쌍으로 보다 세부적으로 분류<sup>9)</sup>하고 있다.

로렌스의 이원론을 보다 독특하게 만드는 특징은 대립과 갈등이 단지 투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투쟁을 통해서 양자가 균형을 취하고, 이를 통하여 생명력을 성취한다는 것이다. 즉, 대립과 갈등을 생명의 원리로서의 이원론적 투쟁관계로 받아들이고, 완전한 균형을 성취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 점을 로렌스는 그의 에세이 「왕관」에서 사자와 일각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사자와 일각수는 왕관을 차지하기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그 아래에서 투쟁하고 있을 뿐, 왕관은 그들의 싸움 위에 존재한다. 그들이 만약 친해져서 나란히 눕는다면 왕관은 그들 위에 떨어져 그들 모두를 죽일 것이다. 만약 사자가 일각수를 진정으로 이겼다면, 짐승의 왕의 머리를 짓누르는 왕관이 그를 파멸시킬 것이다. 10)

---

8) D. H. Lawrence, "Study of Thomas Hardy," in *D. H. Lawrence: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 A. H. Inglis (London: Penguin Books, 1977), p. 602.

9) Hough, *The Dark Sun*, p. 224. 허프는 이 책에서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를 각각 Light와 Dark, Sun과 Moon, Intellect와 Blood(instinct), Will과 Flesh, Male과 Female, Love와 Law, Spirit과 Soul, Mind와 Senses, Consciousness와 Feelings, Knowledge와 Nature, Motion과 Inertia, The Son과 The Father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10) Lawrence, "The Crown," p. 370.

달래스키 역시 “양극에서 일어나는 유일한 절대적인 관계는 상호보완적이지 상호융합적인 것이 아니다”<sup>11)</sup>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양극의 상호투쟁과 균형을 기본전제로 하는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기존의 이원론적 철학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플라톤의 이원론과 기독교적 이원론은 정신의 절대적인 세계를 강조하면서 육체를 도외시하는 경향이 있고, 동양의 음양이원론도 생명의 구체적인 현상 쪽인 음기보다는 생명의 정신적인 원리 쪽인 양기에 우월성을 두고 있다. 즉, 기존의 이원론은 여성원리보다는 남성원리에 무게를 두는 것이다. 하지만, 로렌스의 양극적 이원론은 표면적으로는 우주의 생명현상을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로 구분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 여타 이원론과 비슷한 입장을 취하지만, 정신적인 남성원리와 육체적인 여성원리가 대등한 관계를 이룬다는 점에서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동양의 음양이원론에서는 대립세력인 음과 양의 상호조화가 자연현상의 발전원리임에 반하여, 로렌스의 이원론에서는 대립세력인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상호투쟁 작용이 천지간의 생명원리로 되어 있음<sup>12)</sup>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성원리와 여성원리로 대표되는 상반된 양 극단은 개인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영과 육의 갈등에서부터 실제 생활 속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태양과 달로 상징되는 우주적 질서까지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성격을 띤다. 즉, 모든 인간이 겪어야 하는 내적 갈등에서부터, 남성과 여성의 관계 그리고 태양과 달의 우주적 질서까지도 그의 이원론으로 보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립과 갈등은 균형을 이루어 조

---

11) H. M. Dleski,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London: Faber and Faber, 1965), p. 31.

12) 양 영 수, pp. 77-115.

화를 쟁취해야 하는데,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각기 고유의 독립성을 유지 하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자아성취를 위한 영과 육의 갈등을 살펴보자. 개인이 완전한 자아를 성취하려면 영혼과 육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만약 인간이 영혼과 육체 중 하나만을 추구하거나, 어느 한 속성을 무시하는 극단적이거나 일방적인 태도는 남성원리의 속성과 여성원리의 속성을 분열시키게 되며, 이는 곧 남녀관계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정신과 육신의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가 있다. 로렌스는 진정한 자아의 성장과 완성은 개개인에게 들어 있는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갈등과 투쟁을 통한 균형과 조화의 상태에 있다고 했다. 갈등을 통한 완전한 균형을 이루려는 인간의 갈망을 로렌스는 “종교적 노력” 이라고 말했는데, 상반된 두 극이 갈등과 대립을 겪어서 완전한 관계가 되면, 이들은 절대적이고, 무시간적인 상태에 도달하게 되며, 여기에서 인간은 영혼의 불멸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유일한 하나가 되는데, 그 관계는 무시간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그 영원은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것이지만 그들의 관계는 경감되지 않는 지속적이고 절대적인 것이다. 13)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인간은 외형적으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다 남성적인 면과 여성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남자는 남성원리의 속성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여성의 경우는 여성원리의 속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때에 따라서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전도되어 나타날 수도 있다. 『무지개』에서도 남성들의 경우 “피의 친밀감” 을 특징으로

---

13) Lawrence, "The Crown," p. 409-410.

하는 여성원리가 강하게 나타나며, 여성들의 경우에도 “존재의 범위”의 확장을 특징으로 하는 남성원리의 특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원론적 갈등은 개인의 내면에서 뿐만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로렌스는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항상 남성과 여성과의 관계이다”<sup>14)</sup> 라고 주장하면서, 모든 인간의 만남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의 만남을 가장 핵심적으로 여기고 있고, 이를 자아성취의 문제와 연관시키고 있다. 즉, 영혼과 육체의 갈등과 균형을 경험한 개인이 보다 완전한 자아성취로 향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겪어야 하는 남녀관계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서로 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하여 끌어당길 때, 각각이 자신의 개별적인 영역에서 두 개체가 평형을 이루고 나란히 될 때까지 그들은 더욱 더 가깝게 끌어당길 것이고, 서로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동일한 무한의 목표를 향하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다시 지나칠 때까지 서로가 더욱 가깝게 끌어당길 것이다.<sup>15)</sup>

모든 인간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남녀관계는 투쟁과 화해의 연속적인 반복이다. 즉, 남성과 여성 사이의 투쟁은 어느 한 쪽을 정복하고자 하는 갈등이 아니라 각자의 자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도 긴장된 평형관계, 즉 “별들의 균형(star-equilibrium)”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로렌스 작품의 남녀 주인공 대부분은 서로의 독립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예를 들면, 한 개인이 지나치게 자아를 주장하면서 상대방을 소유 또는 지배하려 하거나,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자신의 독립을 말살시키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분리의 개체로서 완전한 독립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어느 한 편으로 용

14) Lawrence, "Morality and the Novel," p. 180.

15) Lawrence, "Study of Thomas Hardy," p. 567.

합되거나, 어느 한 쪽이 굴복하지 않는 균형 속에서 자유롭고 순수한 남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원심력과 구심력, 바퀴와 축의 관계처럼 개체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로 합쳐진 “하나 속의 둘”(Two-in-one)<sup>16)</sup>이다. 두 개의 독립된 자아가 하나로 결합되면서도 각자는 자유롭게 자신의 속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로렌스의 이원론은 또한 남녀관계에서 확대해 나가서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로까지 발전한다. 완전한 자아 성취와 보다 완전한 남녀관계의 결합을 위해서, 개인은 존재영역을 확대시켜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그것은 대개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와 관련되어 나타나는데 로렌스는 “개인의 완전한 성취는 사회생활에서의 개인의 성취에 달려 있고, 한 개인을 고립시키게 되면, 그로 하여금 그의 생활을 빼앗는 것이다”<sup>17)</sup>라고 말하면서, 완전한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다른 존재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로렌스는 남녀관계의 결합을 더 원만하게 하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개인과 다른 존재물과의 관계영역을 우주적인 차원에까지 무한히 발전시키고 있다. 이것은 로렌스가 말하는 완전한 자아 성취의 기준으로써 완전한 개인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존재물들과의 조화로운 완전한 관계를 이루어야 참된 자아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로렌스가 이원론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그는 그 자신이 “나는 한 몸 속에 두 명의 인간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의 완전한 전체가 아니라 두 명의 인간이다”<sup>18)</sup>라고 밝혔듯이, 태어날 때부터 한 몸에 두 가지의 이질적인 핏줄을 이어받고 성장해온 작

---

16) Lawrence, "The Crown," p. 368.

17) D.H. Lawrence, "Education of the People," in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H. Lawrence*, ed. E.D. Macdonald, (London: Heinemann, 1961), p. 613.

18) Jessie Chambers,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London: Jonathan Cape, 1980), p. 136.



가이다. 그는 현세적이고 관능적이며 자연 애호가인 아버지와 청교도적 준엄성과 독선적 태도를 지닌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양친의 상반되는 기질을 이어 받았다. 로렌스의 어머니는 원만치 못한 부부관계에서 남편 대신 아들에게 온갖 애정을 쏟았다. 이 같은 어머니의 과도한 모정은 로렌스가 시도하는 여성과의 교제에 커다란 장애물로 작용했고, 그의 사랑은 이원화되어 어머니에게는 영혼을 바치고 다른 여성에게는 육체적 사랑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첫사랑인 제시 체임버스(Jessi Chambers)와 헤어진 후 대학 은사의 아내인 프리다(Frieda)와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나, 이들은 서로가 강렬한 자아의 소유자였으므로 평탄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언제나 언쟁이 그치지 않는 투쟁의 연속이었다. 로렌스가 광부의 아들이라는 점과 프리다가 대학교수의 아내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들의 관계에서 내재되어 있는 이질성과 그에 따른 이원론적 갈등을 짐작할 만한 일이다. 그가 과도하게 육체적인 본능에 집착하는 것도, 그 자신이 폐병으로 인하여 건강한 성생활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충분히 납득할 만한 일이고, 성에 대한 불만족이 육체중심적인 인생관의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당대 문인들이 예술지상주의를 선언하며 예술의 완성을 위하여 노력할 때, “나 자신을 위한 예술”(art for my sake)을 주장하며, 자아의 완성을 꾀한 것은 이러한 개인적인 인생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생각된다.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그의 작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데, 본고에서 다룬 『무지개』에서도 정신과 육체, 남성과 여성, 문명과 자연 등 양대 세력 간의 대립과 공존 그리고 조화 양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로렌스의 이원론에 입각해서 추적해 나가는 것이 작품에 접근하는 의미있는 방법이 될 것이다.

### Ⅲ. 자연과 문명의 대립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논함에 있어서, 자연과 문명의 대립은 작품의 큰 틀을 형성하는 중요한 테마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로렌스는 인간관계를 경직시키고 나아가 진정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저해요인으로서 현대문명의 특징인 고도의 지성편중과 본능억압을 지적하고 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지성편중이나 과학주의와 같은 남성원리적인 속성에 과도하게 노출되는 반면 자연에 근거한 여성원리적인 속성을 점차 상실함으로써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결국은 정서적 불모성 및 자아의 상실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계화되고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이원론적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갈등은 집중하는 산업화, 즉, 도시화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다시 말해서, 인간, 특히 “남녀가 평화롭게 지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은 양성간의 내재적 차이가 아니라 인간의 삶이 기계화로 전락된 외재적 환경, 즉 기계문명”<sup>19)</sup>에 있는 것이어서, 이는 곧 자연과 문명의 대립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는 로렌스의 이원론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되는 것이다.

양영수 교수도 로렌스의 현대문명비판의 의의를 자연대 문명의 상호작용과 관련시켜 정리하면서 “육체, 본능, 생명력 등의 의미가 손상되지 않은 자연세계와 정신적 이념, 과학주의, 소유 추구 등을 통하여 자연을 파괴한 문명세계와 대립적인 것”<sup>20)</sup>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곧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이원론적 대립적인 쌍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 Alastair Niven, *D. H. Lawrenc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 2.

20) 양영수, 『로렌스 문학의 해부』, (서울: 한신문화사, 1994), p. 196.

이에 본 장에서는 자연과 문명을 여성원리와 남성원리에 근거한 이원적인 대립관계로 보고, 자연과 문명을 대표하는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징적인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자연과 문명 사이의 이원론적 대립관계는 제 1세대인 톰(Tom)과 리디아(Lydia)의 시대와 제 3세대인 어술라(Ursula)와 스크레벤스키(Skrebensky)의 시대를 통하여 파악할 수 있다. 전통사회에서 현대문명 사회로 이행하는 과도기적인 사회에 살았던 제 2세대 윌(Will)과 애나(Anna)는 현대문명의 이기에 대한 신랄한 비판보다는 그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내적갈등을 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제 3장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작품의 주인공으로 묘사되고 있는 3세대, 탐과 리디아, 윌과 애너 그리고 어술라와 스크레벤스키의 관계가 농장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시로 이동해 산업적 기술의 진보와 접하게 됨에 따라 인간관계가 점점 악화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자아의 확장에 대한 관심사가 점차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즉, 현대문명이 유입되면서 기존의 피의 친밀성에 의한 전통사회가 몰락하고, 인간관계도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지만, 현대문명을 극복하기 위하여 로렌스가 제시한 이원론적 세계관에 근거한 자아의 독립과 확장이라는 주제는 세대가 흐를수록 보다 강화되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작품의 서장에서 나타나는 자연과 문명의 관계를 살펴보자. 로렌스는 서장에서 자연과 교감하는 전원생활의 정취에 대하여 매우 서정적이며 목가적인 필치로 묘사하고 있다. 브랑웬가의 사람들은 자연의 리듬을 느끼며, 그 생명력의 일부가 되어 살아왔다. 대지가 부풀어 올라 밭고랑을 만들고 바람이 불어 젖은 밀을 말려주며, 밀이삭이 여무는 모습을 통해 자연과 밀착된 우주의 생명력을 만끽하고 있다. 새끼를 낳는 암소의 진통을 바라보면서 생명 탄생의 기쁨을 느끼고, 대자연의 숨결을 통하여

생명의 에너지가 핏속으로 용솟음치는 것을 느낀다.

브랑웬가의 남자들은 노동을 통해 자연을 맥박으로 느끼고, 자연의 리듬에 충만한 삶에 안주하며, 혈연관계에 깊이 뿌리를 내린 채 생명력으로 충만한 본능적 삶을 즐기고 있다. 그들은 하늘과 대지의 교접(intercourse)으로 인한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이 없이 과거로부터 전해 온 순박한 전통과 피의 친밀성 유지에 만족하며, “수평의 대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다.

그들의 몸에서는 수액이 밀려 올라가는 것을 느꼈고 또 정지될 수 없는 씨앗을 짝 튀우고 물러가면서 갓 태어난 생명을 지상에 남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늘과 땅 사이의 교접, 가슴 속 깊이 빨려 들어가는 햇빛, 대낮 속으로 흡수되어버리는 비, 가을이면 바람 밀고로 다가와서 새들의 등지를 훤히 드러 내버리고 마는 발가벗음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흙의 몸체와 맥박을 느꼈다.<sup>21)</sup>

그러나 여자들은 “피의 친밀감”에 근거한 자연의 생활을 받아들이면 서도, 창조적인 풍부한 삶의 차원에서 벗어나 “보다 수준 높고, 아름답고, 더욱 더 생동감이 있는 삶”을 동경하게 되고, 도시와 정부가 있는 보다 큰 문명세계와 교육과 지식과 경험을 동경한다. 다시 말하면, 브랑웬가의 여성들은 전통사회에서는 개화된 문명을 획득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들의 자유를 확대하고 자식들에게 보다 높은 형태의 삶을 제공하려고 한다. 이러한 열망은 농장에서 일하다가 고개를 들어 멀리 일크스톤을 바라보면 하늘 높이 솟아있는 “교회첨탑”으로 대표되는데, 브랑웬가의 입장에서는 미지의 세계로, 즉 문명에 대한 동경이라 할 수 있다.

---

21) D. H. Lawrence, *The Rainbow*, ed., Jung-mae Kim (서울: 탐구당, 1998), P. 33. 앞으로 이 작품에서의 인용은 이 책에 의한 것임.

그러나 여자들은 이것보다 다른 형태의 삶을 원했다. 즉 피의 친밀한 교류가 아닌 다른 삶이었다. 여자는 도시와 관청이 들어서 있고, 인간의 활동이 전개되어 마술의 세계인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곳은 온갖 비밀이 밝혀지고 욕망이 성취되는 곳이었다. 그녀는 인간들이 권력을 쥐고 창의적으로 움직이고, 그들 자신의 활동범위와 자유를 확대하는 외부 세계를 향하고 있었다. 반면에 브랑웬 가문의 남자들은 충만하나 생식의 삶을 위해 내부세계를 향하고 있는데, 그 생식의 삶은 그들의 혈관 속으로 그대로 쏟아졌다. (p. 34)

위에서 “교회침탈”과 “수평의 대지”는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를 암시하는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전자는 수직의 이미지로 지성을 상징하고, 후자는 수평의 이미지로 육체, 자연 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교회침탈은 남성원리를 상징하면서 문명세계를 암시하고, 수평의 대지는 여성원리를 상징하면서 자연을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시기의 브랑웬가의 남자들은 자연과 토지가 밀접한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는데 이러한 삶을 로렌스는 “피의 친밀감”으로 표현하였다. 피의 친밀감의 삶은 지성적인 의식의 추상화에 방해받지 않고 자연에서의 위대한 삶의 흐름과 인간의 흐름이 일치된 상태의 삶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세대의 주인공인 톰이 맞이하는 사회는 피의 친밀감에 근거한 전통적인 사회가 서서히 약화되고 문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단계였다. 1840년경 마쉬 농장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개통되고 철도와 탄광이 부설되면서 산업화가 하나 둘 진행되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보다 넓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되고 의식화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여태까지 전통이라는 울타리 속에 갇혀 보이지 않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점점 표면화되고 있는 것이다.

제 1세대인 톰 브랑웬은 피의 따스함과 생명력, 힘찬 활력으로 전통적인 피의 친밀감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브랑웬가의 후손이다. 그는 한 가지

종류의 여성 즉 그의 정신적 지주로서 사랑, 도덕, 종교의 원천인 어머니만을 알고 지내왔다. 톰은 진보적이고 교육열이 대단한, 다시 말하면 남성원리적인 속성이 강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문법학교에 가게 되지만, 문명보다는 피의 친밀감에 의한 여성원리적인 속성이 강한 톰은 애초부터 자신이 학교에서 열등생이 되리라는 것을 알았다. 지적인 면과는 달리 그의 본능적인 감정은 일찍부터 발달하여 주위 아이들의 기계적인 생활방식을 증오하고 멸시할 만큼 섬세한 감수성을 갖고 있다. 문학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낭송하는 셸리(P.B. Shelly)의 「서풍부」(Ode to the West Wind)에 크게 감동하여 책을 들고 앉았지만 그는 자발적으로 주의를 집중시킬 능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톰은 지적인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지 못해서 결국 학업을 중도 포기하게 되고, 귀향하여 아버지 대신에 농장을 운영하며 생활하게 되는데, 자신의 실패와 무능을 자각하고 있었던 학창시절 동안 그가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은 것은 그에게는 마쉬농장의 대자연과 호흡을 같이하는 원초적인 생명력이 넘쳐흘렀기 때문이다. 그가 귀향하여 마쉬농장에서의 육체노동과 흙냄새를 즐기는 모습은 자연과 밀착된 그의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톰은 어머니의 영향에 의하여 성을 증오하고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성에 대한 욕망과 이러한 욕망을 억제하려는 도덕심 사이에서 갈등을 느끼는데, 19살 때 경험한 창녀와의 성 경험은 그에게 심한 갈등을 불러일으킨다. 즉, 성에 대한 공포감과 여자에 대한 육체적 욕망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본능 사이에서 심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갈등의 시기에 폴란드 출신의 미망인인 리디아 렌스키를 만난다.

톰은 리디아를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저 여자야”(p. 57)라고 외친다. 톰은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점과 낮설다고 하는 점에 강한 매력을 느끼고 내부에 새로운 변화를 깨닫는다. 즉 리디아의 “이질성”과 “생소

함”이 “미지의”, “저 너머”의 세계를 일깨워 준 것이다.

브랑겐은 마침내 비현실이 현실로 정착했다고 느꼈다. 그는 마치 그녀가 그에게 운명적으로 점지된 여자인 것 같은, 그녀에 대한 이상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가 외국인이라는 것은 그에게 굉장히 만족스러웠다. 그의 마음 속에서는 새로운 변화가 있었다. 새로운 창조가 완결되었고 자기가 그 창조 속에서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 같았다. (p. 60)

리디아는 혁명가의 의사였던 남편을 헌신적으로 도왔던 폴란드계 미망인으로서 교육과 사회계층에 있어서 톰보다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당한 지성의 소유자였기 때문에, 단지 저 너머에 있는 세상을 동경하는 브랑겐가의 여성들과는 달리 그녀는 이미 문명세계의 한 부분이다. 또한 조국의 독립을 위해 맹렬히 투쟁할 정도로 지성적인 밝음의 속성이 강한 여자면서, 동시에 남성의 정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성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전 남편은 그녀를 자신의 부속물쯤으로 여겨 그녀의 생각이나 감정에 무관심했고, 그러한 상황에서 두 아이마저 디프테리아로 잃은 리디아는 항상 “수동적이었고 우울했으며 항상 그늘 속에서” 생명력을 잃고 정신의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는 자연 속에서 어둠의 속성을 띠고 살아온 톰에게 있어서 리디아 렌스키는 문명세계에서 온 여성이어서 톰의 여성원리적 속성인 어둠을 일깨우는 상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역으로 문명세계에서 온 리디아에게는 자연에 근거한 원초적 생명력을 일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톰과 리디아의 자연과 문명을 대표하는 이원적인 속성은 톰이 리디아에게 구혼을 하기 위하여 목사관으로 찾아가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창을 경계로 해서 리디아가 있는 부엌 안은 빛의 세계이고, 창 밖에 있는 톰의 세계는 어둠의 세계다. 창 밖에서 강하게 불고 있는 바람은 곧

톰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격동을 보여주며, 불빛 아래서 어린 딸 에나를 무릎에 안고 난로 앞에 앉아 있는 리디아의 세계는 안식의 세계이며 문명의 세계인 것이다. 그러니까 톰이 단행한 “밤으로부터의 침입”은 어둠으로 대표되는 톰의 세계에 리디아가 갖고 있는 남성원리적인 속성을 자기 체질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남성원리와 여성원리가 결합하려는 의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톰은 자연에 뿌리박은 생명력으로 그녀의 메마른 영혼을 적시며, 리디아가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주지만, 리디아의 낯선 과거와 우월성에 위축되며 그녀 뒤에 놓인 미지의 세계를 막연히 예감하고 단절감을 느낌으로써, 그들의 결혼생활은 그다지 순탄치 않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체적 세계에서는 순간적 충동이나 욕정으로 갈등과 균형을 되풀이 하지만 정신적 세계에서는 톰이 리디아에게 압도당함으로써 균형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즉, 톰이 여성원리의 속성으로 리디아에게 정열적인 집착을 강요하는 반면 리디아는 독립성과 개별성을 유지하려고 한다. 이러한 상태에서 톰은 자기가 “기둥이 부서져 나가버린 홍예문” 같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톰이 아내와의 반응없는 결혼생활에서 방황하는 이유는 톰이 리디아의 “타자성”(otherness)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리디아의 지적인 면에 기인한 피의 친밀감의 결여, 즉 여성원리적인 속성의 결여 때문이기도 하다.

마쉬농장의 홍수로 인하여 목숨을 잃게 되는 톰에 대하여 니븐은 “톰의 죽음은 곧 그가 상징하는 전통사회의 몰락과 동일시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다”<sup>22)</sup>라고 주장하였고, 스톨(John E. Stoll) 역시 “톰은 산업혁명과 관련된 첫 희생자”<sup>23)</sup>라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면서, 톰이 자연에

---

22) Niven, p. 85.

23) John E. Stoll, *The Novels of D.H Lawr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of Missouri, 1971), p. 110.



근거한 전통사회를 상징하고 있고, 그의 죽음은 곧 현대문명에 의하여 점차 사라지는 자연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다.

제 3세대인 어술라를 통한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은 매우 신랄하다. 어술라 시대에 와서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등장인물들은 극도의 추악함과 기계적 맹목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로 올수록 인간은 점차 전통사회의 가치체계와 결별하고 산업화의 영향으로 기계의 노예가 되어 물질을 숭배하게 된다. 육신은 살아있으나 영혼은 상실되어 버린 생중사(生中死)의 상태가 되고 마는 것이다. 이처럼 영혼을 잃어버린 인간들은 그 빈 공간을 메우기 위해 물질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남성원리의 속성인 의지적인 자아만이 남게 된다. 『무지개』의 어술라와 스크레벤스키 관계가 바로 이런 남성적인 기계적인 지배의지가 현저히 나타나는 관계로서 어술라는 브랑웬가의 후손으로서의 “피의 친밀감” 과 자아의지가 강한 여성으로 나타나지만, 스크레벤스키는 개인은 무시되고 조직만이 강조되는 현대문명을 대표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어술라가 스크레벤스키를 만난 것은 새로운 자아의 주인공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끊임없는 자기 발전의 욕구로 초조감을 느끼고 있을 때였다. 그녀가 스크레벤스키를 선택하고 사랑한 것은 그를 통해서 더 넓은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었고, 그를 통하여 최대한으로 자아를 확대해보려고 벌이 향기에 끌리는 것처럼 끌려간 것이다.

그는 점점 더 그녀에게 광대한 세계와 낮은 거리와 무수한 인류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았다. 마치 향기가 멀리서 벌을 끌어들이듯이 그녀를 잡아당기는 것이었다. (p. 338)

그러나 스크레벤스키는 군인이라는 신분 자체가 말해주듯이, 국가의 기존 질서와 고정 관념에 맹목적으로 따르고, 창의성과 융통성이 결여되어

존재론적인 자아확대 의지가 없는 인물이다. 즉, 육체적인 면 이외의 정신적인 영역에서 자기 생각이라고는 없이 기존 가치관에 순응하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내면의 고유한 인격이 죽어버린 가운데 자신의 무자각적이고 타성화된 생활에 대해 아무런 회의도 없이 살아간다. 단지, 조직화된 현대사회 속에서, 국가라는 커다란 구조물 속에서 한낱 벽돌의 존재에 지나지 않는 현대문명의 전형인 것이다.

스크레벤스키는 자기 임무에 온 힘을 쏟으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나 가슴 밑바닥에는 그의 자아가, 동경과 자기성취의 진실된 희망을 가진 영혼이 죽은 채 놓여 있었다. 그 주검이 그의 자궁 속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고, 그는 그 주검으로부터 일어날 수 없었다.... 그는 국가, 오늘날의 인류라는 거대한 사회구조 속의 한 개의 벽돌에 불과했다. 그의 개인적 움직임은 하찮은 것이었고, 전적으로 종속적인 것에 불과했다. 전체라는 조직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것은 어떤 개인적 이유로도 파괴되어서는 안 되었다. 어떤 개인적 이유로도 그와 같은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인적 친밀관계가 무슨 문제가 된단 말인가? 각자 전체 속에서 자기 자리를 채워야 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전부였다. 전체가 문제가 될 뿐, 각각의 단위나 개인은 그가 전체를 대표하는 경우 외에는 어떤 중요성도 갖지 않는 것이었다. (p. 273)

스크레벤스키의 삶은 기성질서에 이미 고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욕구의 만족 이상은 바라지도 않는다. 그는 오직 전체주의 속의 개인만이 그 존재의 의미가 있다고 믿고, 그의 영혼이나 정신에는 관심이 없는 것이다. 그는 틈에게서 볼 수 있는 안정성과 월에게서 찾을 수 있는 열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 자신만의 진정한 자아가 없기 때문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며 국가의 부름이 없을 때는 자신은 "무의미한 것"(nothing)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한다.

리비스는 “이 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새로운 인간관계의 확립의 문제는

현대사회가 직면하는 본질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sup>24)</sup>고 말한다. 스크레벤스키의 치명적인 결점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과 같은 집단 전체의 복지 증진이 그 집단 내의 개개인들에게 자기실현적인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현대사회의 부정적 요소들도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관계의 모든 문제점은 그들이 처한 시대와 문명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되며, 인간관계에서 드러나는 문제들을 직시하는 것은 곧 그 시대가 안고 있는 병폐와 개선의 방향까지도 암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스크레벤스키의 기계적이고 맹목적인 지배의지는 어슐라가 산책길에서 만나게 되는 뱃사공의 인간적이고 자연스러운 모습과 뚜렷이 대조를 이룬다. 비록 무식하고 가난한 뱃사공이지만 그들은 충만한 삶에서 오는 자족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의 투박한 모습과 현실적이고 개체적인 태도는 문명세계에 오염되지 않아서 어슐라로 하여금 따뜻한 감정과 풍성한 생명력을 느끼게 해준 반면 스크레벤스키에게서 느끼는 관념적이고 비개체적인 태도는 문명에 찌든 황폐한 불모감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그 사내는 그녀에게 따스한 감정을 불러일으켜 주었던 것이다. 사공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생활이 부유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러나 스크레벤스키는 어쩐지 그녀 주위에 어떤 적막감, 어떤 불모성을 만들어서 마치 이 세상이 잿더미인 양 느끼게 해주었다. (p. 361)

모이나한(Julian Moynahan)<sup>25)</sup>이 적절히 지적한 바와 같이 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뱃사공은 삶의 매우 귀중한 것을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으며 로렌스에게는 이것이 불행한 현대인이 망각하고 있는 가장

---

24) Leavis, p. 163.

25) Julian Moynahan, *The Deed of Lif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63), p. 61.

큰 진리였던 것이다. 로렌스는 단순노동을 하며 평범하게 살아가는 뱃사공과 국가라는 거대한 조직을 위해서 생기있고 인간적인 삶을 포기한 스크레벤스키를 대조시킴으로써 현대문명의 불모성을 현저히 부각시키는 것이다.

현대문명에 대한 비판적 태도는 위니프레드 잉거(Winifred Inger) 선생과의 만남과 요크셔 탄광촌에서의 경험으로 보다 증폭되어 나타난다. 어슐라는 자기와 동성연애 관계를 가졌던 잉거 선생과의 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외삼촌인 톰 브랑웬(1세대인 톰과는 동명이인)과 그녀를 결혼시키려 한다. 톰은 위그스턴에 살고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그만 촌락이었던 그 마을이 광산이 들어선지 일년 만에 산업화에 의하여 황량한 모습으로 변했다. 거리도 매우 추악하고 모든 것이 단조로워서 생기가 없어 보이고, 거기에 사는 광부들도 사람이 아니라 유령처럼 보인다.

석탄층이 발견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서, 위그스턴은 땅이 다섯 개씩 딸린 알팍하고 부실해 보이는 집들이 분홍빛으로 늘어선 커다란 마을로 변한 것이었다. 거리는 지저분하기 이를 데 없었다. 흑회색 돌이 깔린 도로와 아스팔트 인도가 벽, 창문, 현관문이 연이어 서있는 사이로 나 있었다. 그 길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서 끝나는지도 모를 정도로 길 양 쪽엔 갓 짚어낸 벽돌담이 길게 늘어서 있었다. 색다른 점이라곤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똑같은 형태로 끝없이 반복될 뿐이었다.

....이 마을은 웬일인지 폐허와 같은 황량함을 풍기고 있었다. 무리를 지어 서성거리거나 일터를 향해 아스팔트 위를 무겁게 걸어가고 있는 광부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유령들 같았다. 텅빈 거리의 경직성과 똑같은 모양의 집들이 볼품없이 주욱 늘어서있는 모습이 삶보다는 죽음과 더 가깝게 여겨졌다. (p. 391)

이 장의 제목이 “수치” (Shame)로 명명된 것처럼, 로렌스는 생명력이 완전히 메말라버린 사람들과 어둡고 축축한 마을 풍경을 극단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현대 영국의 산업주의 물질문명에 대한 비판적 통찰과 증오감을 표현하고 있고, 이는 곧 자연과 생명력이 꿈틀거리는 브랑웬가의 초창기 세대와는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외삼촌인 톰 브랑웬은 물질문명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무미건조한 기계적 삶과 탄광촌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물질화, 기계화된 모습에 만연되어 허무에 빠져 있고, 위니프레드도 변태적 관능과 물질 애호적인 성향을 가진 현대적 인물로서 어슐라가 자기를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무력감에 빠져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기분에 빠져있다. 그들은 “톰과 위니프레드의 진정한 주인이 기계” (p. 396)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이루는데, 자아의 확대나 사랑과는 관계없이 결혼한다.

로렌스는 현대문명의 기계적 속성이 인간의 원초적 생명력과 자연적인 삶을 말살하여 인간을 하나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고, 이는 곧 인간을 “살아있으면서 죽은” (living-dead) 상태로 전락시켜서 비인간화, 비개성화의 상태로 몰고 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어슐라를 통해서 기계적 광산이며 하는 것들을 부숴버리고 싶다고 말한다.

어슐라의 가슴 속에서 증오심이 끓어올랐다. 그럴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 기계를 부숴버리고 싶었다. 그녀의 영혼을 분노케 하는 증오심이라면 그 거대한 기계를 충분히 부숴버릴 수 있을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탄광을 파괴해서 위기스틴 사람들을 모두 일하지 않게 할 수만 있다면, 그녀는 그렇게 하고 싶었다. (p. 396)

새로운 돌파구를 찾던 어슐라는 고등학교 은사로부터 초등학교 교사가 되라는 충고를 받게 되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린슬리에 있는 초등학교 교사로 가게 된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은 브린슬리로 가는 기차간에서의 “축축하고 을씨년스러움” 과 동료교사들의 냉소

적인 반응이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거칠고 냉엄한 현실에 직면한 어슐라는 “감옥 속에 갇힌”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교장을 “기계주의의 극복할 수 없는 원천” 으로 그리고 학생들을 “하나의 훈련된 기계적 부속품” 으로 인식한다. 학교라는 “남자의 세계” 에서 자아확장의 열정을 불태우고자 한 어슐라에게 이러한 현대문명의 기계적 속성과 집단화는 그녀에게는 커다란 절망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인간의 개성이 무시되고 규칙이나 제도에 학생들을 얽어매려는 학교 풍토에 크게 실망하여 어슐라는 2년 만에 교직을 그만 두고 기대를 가지고 대학에 진학한다. 어슐라는 대학의 학구적인 분위기와 교수의 강의에 호감을 갖게 되어, 대학이란 지식의 성당이며 교수는 대변자요 성직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학이란 곳도 개인성을 무시하고 사회에 필요한 부속품과도 같은 사람을 양성한다는 사실과 물질적 성공에 관심을 둔다는 점에서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여서 그녀의 대학에 대한 혐오는 일케스틴에 있는 초등학교에 대한 증오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다.

저 일케스틴의 학교에 대한 증오심도 대학의 심한 타락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앞에는 항상 빛나는 문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다가가면 빛나는 문은 다른 추악한 뜰과 더럽고 부산한 죽음의 장소에 이르는 문이었다. (p. 481)

탄광촌의 탈 생명성과 학교라는 현장의 기계화, 집단화 그리고 대학의 상업주의와 물질주의 등 어슐라가 경험하게 되는 이러한 현대문명의 남성원리적 불모성은 그녀가 희구하는 자아확대 의지와 상치되는 것들이고, 이는 서장에서 묘사되는 전원적 생명과 계절의 변화, 자연의 리듬에 따르는 여성적 원리와는 극단적으로 대립되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심각한 환멸감에 빠져있는 어슐라는 다시 돌아온 스크레벤스키

에 희망을 걸지만 그는 자아의 확대나 참된 인간성의 계발에는 관심이 없이 사회나 국가에 충실하려고 하는 기계적 인간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망이 없는 일이었다. 물론 그들의 원만한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든 것은 현대사회를 대표하는 스크레벤스키의 속성 때문이다.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저해하는 현대문명에 대한 로렌스의 부정적 시각은 작품의 후반부에 어솔라와 스크레벤스키의 정사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들은 서섹스의 작은 언덕 근처 오두막에서 휴가를 보내게 된다. 언덕 꼭대기에는 바다가 마주 보이고, 발아래 숲과 그 사이로 맹목적으로 달리는 기차가 보였는데, 어솔라는 기차로 상징되는 현대문명의 자연파괴와 근시안적 가치관에 비판의 눈을 뜨게 된다. 밤이 되자 그녀는 그를 데리고 언덕 위로 올라가 옷을 모두 벗어 버리고 잔디 위로 달려가고, 물속으로 들어가며 별처럼 자유로움을 느낀다. 새벽이 되고, 태양이 떠오르자 황금색으로 변한 대지가 고요하고 희망에 찬 모습으로 빛나고, 그녀는 눈물을 흘린다.

그토록 아름답고 순결한 아침에, 스크레벤스키는 자신이 믿어온 문명의 가치관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자신이 믿어왔던 가치관에 매달리고 그녀의 경험에 동참하지 못한다. 그의 사랑체험에 이처럼 뚜렷한 한계가 보이는 것은 인간 삶의 창조적인 생명력을 저해하는 현대문명의 기계주의적 사고 때문이며, 이를 극복할 의지와 생명력이 그에게는 부족했기 때문이다. 링컨셔 해변에서 달빛을 받으며 그녀가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고 한 것은 그의 속박을 벗고 자기 생을 찾고자 하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그들은 눈부신 달빛 속에서 육체적 관계를 갖지만, 그것은 자연과의 교감이 전혀 없이 생명력이 결여된, 서로를 파괴시키려는 고통스러운 투쟁일 뿐이다.

로렌스는 제 1세대인 톰과 리디아 시대의 자연과 문명의 균형있는 만

남에서 출발하여 어슐라 시대의 기계화된 문명을 대표하는 광산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문명의 대립구도 속에서 작품을 전개시키고 있다. 제 1세대인 톰과 리디아가 살았던 시대는 자연을 생명의 원천으로 살아왔던 선조들과는 달리 피의 친밀감에 근거한 전통적인 사회가 서서히 약화되고 운하가 개통되고 철도와 탄광이 부설되는 등, 문명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는 단계이다. 1세대가 살던 시기의 마쉬농장은 그나마 “문명으로부터 안전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현대문명의 유입은 세대가 흐를수록 가속화되어 나타나서, 제 3세대인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 세대에 그 정점을 이룬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브랑웬가 사람들의 인간관계는 농장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시로 이동해 산업적 기술의 진보와 접하게 됨에 따라 인간관계의 반생명성이 심화되고 있다. 전통사회의 몰락은 곧 산업사회로 이끔 붙여진 현대문명의 시작을 의미하고, 피의 친밀감으로 살던 사람들에게 문명의 침입은 인간성 상실과 불모성과 같은 현대문명의 병폐로 귀착되면서 인간 개개인의 파괴적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난다.



#### IV. 남성성과 여성성의 갈등과 조화

자연과 문명의 대립구도와 더불어 로렌스가 크게 중시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조화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인간이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갈등을 겪게 되고, 영혼과 육체 중 하나만을 추구하게 되면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과도한 분열로 인한 파국에 이를 수가 있다. 따라서 완전한 자아성취를 위해서 로렌스는 인간 내부의 깊은 심리적인 부분에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알려지지 않은 자아에 대한 탐색 의지를 그는 편집자인 가네트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다이아몬드와 석탄은 모두 탄소라는 동일한 물질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다. 일반적인 소설은 다이아몬드의 역사를 추적할지 모르지만, 나는 “다이아몬드라고!” “이것은 탄소야”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의 다이아몬드는 석탄이나 매연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주제는 탄소인 것이다. 26)

로렌스는 다이아몬드나 석탄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을 추적하기 보다는 그 본질인 탄소 즉, 인간 내면에 자리 잡은 알려지지 않은 자아를 탐색하고 있다. 따라서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사회적 혹은 도덕적 범주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 내부에 존재하는 “알려지지 않은 자아”에 어느 정도까지 충실하느냐에 따라서 판단되며, 이러한 자아는 등장인물들의 내면적 갈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프리다가 로렌스에게 생명력이 넘치는 독립적인 여성상

---

26) D. H. Lawrence, "Letter to Edward Garnett, 5 June, 1914," in *Selected Literary Criticism*, ed., Anthony Beal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 1982), p. 18.

과 양성간의 사느냐 죽느냐의 투쟁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sup>27)</sup>라고 트레이퍼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전작인 『아들과 연인』(*Sons and Lovers*)에서는 순수한 영육의 갈등에서 오는 내면적 갈등 외에 두 자아의 확장을 위한 격렬한 투쟁이 현저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있지만 『무지개』에서는 갓 결혼한 프리다의 영향을 받아서 영육의 갈등에서 오는 내면적 갈등 외에도, 자아 독립이라는 주제가 추가됨으로써 주요 인물들 사이의 내면적 갈등이 가일층 고조된다는 점이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무지개』에 나타난 삼대, 즉 톰과 리디아, 윌과 안나, 어솔라와 스크레벤스키의 세 쌍 간에 전개되는 상호간의 자아 투쟁과 영육의 갈등에서 야기되는 내면적 갈등과 조화양상을 주로 살펴보려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이 작품에서 “수평의 대지”와 “교회침탑”은 중요한 상징성을 띤다. 전자는 수평의 이미지로 육체, 자연 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고, 후자는 수직의 이미지로 지성과 문명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브랑웬가의 남자들은 혈육, 감성, 본능 등의 여성원리의 지배를 받아서 “수평의 대지”를 특징으로 하는 여성원리의 속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여자들은 정신, 지성, 의식 등의 “교회침탑”으로 상징되는 남성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성원리와 여성원리가 전도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대에 걸친 남녀가 서로 다른 이질성을 극복하고 창조적인 삶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길은 상반된 두 극의 균형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다. 『무지개』의 등장인물들이 완전한 자아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피의 친밀감”과 “존재의 범위”의 확대라는 두 개의 욕구를 충족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여성원리와 남성원리의 균형을 이뤄야 함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때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완전한 자아성취는 마쉬농장의 “수평의

27) R. P. Draper, *D.H. Lawrence: The Novels* (Boston: Twayne Publishers, 1964), p. 55.

대지” 위에서 “피의 친밀감”으로 표현되는 육체적 욕구와 “교회침  
탑”으로 상징되는 “존재의 범위의 확대” 즉 독립적인 자기 성장의 욕  
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남녀관계라고 할 수 있다. 즉, 무지개는  
이러한 양극성이 균형을 이루어 가교 역할을 하는 “아치”(arch)로 상  
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제 1세대인 톰은 마쉬농장의 선조들과 마찬가지로 피의 따스함과 생명  
력, 힘찬 활력을 가진 피의 친밀감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전형적인 여성원  
리의 속성을 지닌 브랑웬가의 후손이다. 하지만 현대문명이 유입되면서  
농장 바깥의 세계, 즉 의식적인 삶의 형태로 그들의 생활을 바꾸고자 하  
는 어머니에 의하여 학교로 보내어져 교육을 받는다. 톰은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외부와의 접촉을 하면서부터 자아성취 문제가 갈등으로 표출되  
기 시작한다. 그는 여성원리인 감성과 본능에서는 발달한 인물이지만 남  
성원리를 대표하는 정신에서는 크게 부족한 사람이다. 그래서 톰의 자아  
성취의 욕구는 남성원리 속성의 부족으로 인하여 정신적인 면보다는 육체  
적인 면으로 강하게 표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톰에게는 무의식 상태에 깊이 빠져있던 선조들과 달리 외부세계  
를 동경함으로써 전통적인 세계가 제공할 수 있는 삶보다 더 큰 무엇을  
갈망하는 남성원리적인 속성도 나타난다. 그는 매트락 호텔에서 만난 외  
국인에 대하여 강한 동경심을 가지게 되는데, 그 외국인의 이질성을 동경  
하는 것은 외부세계를 동경하는 브랑웬가의 여자들의 영향을 받은 톰의  
남성원리적인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톰이 폴란드 출신의 미망인 리디아  
를 만나면서 “저 여자야”라고 말 할 수 있는 것도, “뿌리깊은 무감각  
을 깨뜨리고” 새로운 세계를 향하는 그의 내면의식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할 수 있다.

톰은 자신이 동경하던 이국적인 세련미, 지성미, 관능미에 이끌리고, 리

디아는 대지에 뿌리박은 톰의 안정감과 생명력에 이끌리어 서로의 구혼에 응하게 된다. 그 동안 남성원리의 세계에서만 살아온 리디아는 톰을 만남으로 해서 생명의 흐름을 느끼게 된다. 톰과 리디아의 만남은 소설 서두의 이원론적인 구조가 상징하는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리디아에 대한 톰의 구애가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다음의 글에서 알 수 있다.

그녀 자신 속의 새로운 탄생의 고통이 그녀의 모든 핏줄을 새로운 모양으로 꼬아내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시작해서 새로운 형태, 새로운 존재로서 그녀 앞에 적대적으로 버티고 선 이 맹목적이고 고집스런 인물에 반응해야 했다. 어떤 전율, 새로운 탄생의 아픔이 그녀를 몸서리치게 했고, 그 사랑의 불꽃이 톰의 피부 밑에서도 솟구쳤다. 그녀는 브랑웬에게서 나오는 이 새로운 삶을 원했다. (p. 69)

톰은 자연에 뿌리박은 생명력으로 리디아의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자아를 되찾는데 자양분의 역할을 하지만, 한편 그는 그녀의 낯선 과거와 우월성에 위축되며 그녀 뒤에 놓인 막연히 예감하고 단절감을 느낀다. 그들은 표면적으로 양극성에 해당하는 아주 다른 모습과 가치관을 지녔지만, 그들 내부의 생명력이 하나가 되는 순간을 통해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 보여주는 문이 되며, 그림으로써 그들의 결합은 단편적인 삶을 넘어 완성되고자 하는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성취해내고 있다.

그러나 2월의 긴긴 밤, 산고(産苦) 중인 암양들과 함께 우리에게 있으면서 번쩍이는 별들을 쳐다볼 때면, 그는 자신도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예측적인 어떤 것, 즉 파편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어두운 하늘에서는 별들이 움직였고 모든 성좌가 어떤 여행길

에 올라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보다 큰 질서에 순종하는 왜소한 존재로 앉아 있었다. (p. 69)

툼과 리디아의 이원적 구조는 톼이 청혼을 하기 위해 리디아가 살고 있는 목사관에 가는 장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가 목사관에 가까이 갈수록 바람은 점점 더 거세어진다. 그는 의식적이거나 이성적 판단이 아니라 알 수 없는 거대한 힘에 이끌려 리디아가 살고 있는 곳까지 다가간다. 마당으로 수선화를 꺾으러 간 순간에도 바람은 능금나무에 불고 있고 노란 수선화는 위아래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그가 언덕을 올라 목사관으로 가는 동안 바람은 생울타리 사이로 불어오고 있으며, 그는 수선화 다발을 잘 간수하려고 애쓰면서 머리 속에는 오직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 밖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다. 이 순간 자연은 세차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긴장감을 더하는데 톼의 심리상태와도 같다. 톼은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 어둠 속에 선 채 밝은 불빛이 새어 나오는 방안을 들여다본다. 검은 옷을 입고 있는 톼에게 창문 앞은 암흑에 쌓인 자연의 세계와 빛이 환하게 비치는 인간의 문명 세계가 공존하고 있는 듯이 여겨진다. 바람이 불고 어둠에 싸인 자연 속에서 톼은 깔끔하게 정돈된 방안을 바라본다.

창문 밖은 우주와 자연의 힘이 거칠게 소용돌이치는 암흑의 세계이고, 방안은 질서와 문명으로 이루어진 빛의 세계이다. 양 극단의 세계에서 자라온 톼과 리디아의 만남은 어둠과 빛의 만남, 다시 말하면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접촉인 것이다. 톼과 리디아의 결혼에 대해 달레스키는 “그 결혼은 탐이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28)</sup>고 언급하였고, 드레이퍼도 “툼은 리디아에게서 그의 해답을 얻으려 하고 있는데, 그 폴란드 미망인의 관능미와 이질성은 톼의 내부에서 형성된 꿈을 현실화시키고 있다”<sup>29)</sup>라고 언급하고 있다.

---

28) Daleski, p. 83.

툼과 리디아는 결혼 생활에 흔히 따르는 갈등과 화해를 반복하면서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남녀관계를 형성하지만, 결혼 한 후에도 그들에게는 이원적인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 이유는 공교롭게도 젊은 시절 톼을 강력하게 끌어당겼던 리디아의 이국적인 면, 즉 이질성이 그들 인생의 갈등요소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온 배경이 다른 리디아의 이질성은 톼에게는 극복하기 힘든 요소였다. 의사이며 혁명가였던 전 남편에게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시키며 살아왔던 리디아는 “일종의 음침한 격리지대로 들어가서 신비스러운 세력들과 이상한 친교”를 맺고, 전 남편과의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음울한 상태로 빠져드는 것이다. 이는 톼이 자신과 그녀의 “타자성”(otherness)을 인정하기까지의 자기 인식의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그는 실제로 결혼하여 적나라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다. 그는 그녀에 대해 아는 바가 너무 적었다. 그들은 서로 너무나 이질적이고 낯설었고, 서로 대화를 옹기 나눌 수 없었다. 그녀가 폴란드의 과거의 얘기를 할 때, 그 얘기는 너무나 이질적이었고, 통하는 바가 거의 없었다. 그리고 그가 그녀를 바라볼 때, 지나친 존경심과 미지에 대한 공포감 때문에, 그의 욕망은 일종의 경외감으로 바뀌어졌고, 자기의 욕망을 스스로 억제하여 그녀를 초연한 상태에 있게 했다. (p. 86)

리디아의 이질성과 그녀의 개체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톼은 지속적으로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육체적 관계를 가진 후에도 정신적인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여 자주 갈등을 일으키는데, 이는 톼이 리디아의 진실된 모습을 못보고 이국적인 이질감을 느끼며, 육체적 본능에만 매몰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결혼초의 정열적인 삶을 고수하기를 원하는 톼과 자아의 독

---

29) Draper, p. 61.

립성과 개별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리디아 사이에 사자와 일각수 사이의 팽팽한 대립과 균형을 상실한 것이다. 톰의 입장에서 “부서진 아치”에 비유하고 있는데 작자의 독립된 자아를 유지하는 “하나 속의 둘”(Two-in-one)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제퍼스는 톰과 리디아의 내적 갈등에 대해서 “로렌스에게 있어서 양성간의 완전한 결합은 서로의 개체성과 이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데, 톰과 리디아의 경우는 부부로서 이러한 개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sup>30)</sup>고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톰에 대해서 리디아가 불만을 털어놓는 다음의 글에서도 잘 나타난다.

“당신은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듯 제게 접근해요.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말이에요. 폴(전 남편)이 내게 접근할 때에는 나는 그에게 뭔가 중요한 존재였어요. 나는 한 사람의 여자였단 말이에요. 당신에게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축이나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p. 125)

리디아의 산고를 지켜보는 동안 톰은 생명의 역사성과 자신의 존재의미를 재인식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남녀의 사랑이 이룩할 수 있는 무한의 세계를 경험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 즉, 그들은 톰, 리디아라는 개인이 아니라 우주적인 생명력을 대표하는 남성과 여성으로 서로를 재인식하고, 생명을 창조하는 우주적 질서 속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 후에 톰은 자신의 소유욕을 버리고, 그녀의 개별성을 인정하기 시작하였고, 비록 정신과 육신이 이상적으로 조화된 절대적 단계에 도달하지는 못했을지라도 과거의 인습과 전통적인 삶에서 벗어나 보다 성숙하면서도 안정된 남녀관계를 성취한다. 그들은 각자의 길을 가면서, 결합의 순간에 또 다른

30) A. N. Jeffares and Suheil Bushrui, *Notes on The Rainbow* (London: Longman York Press, 1980), p. 60.

새로운 삶의 모습을 창조하는 것이다. 서로에게 새로운 우주를 열어 보여 주는 문이 되어 각자의 새로운 존재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확고하고도 자유로운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들은 보다 먼 공간으로 난 문들을 거쳐 왔다. 그 긴 시간적 공간에는 거대한 역사가 살아 숨쉬고, 그들이 그동안 품었던 유대감과 서로에 대한 구속 그리고 노력까지도 역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고, 완전한 자유가 되었다. 그녀는 그에게 문이 되었다. 서로에게 문을 개방한 채, 서로 마주 보며 문가에 서있는 동안, 그들 뒤에서 흘러넘친 빛은 그들의 얼굴에 쏟아졌다. (p. 127)

이들의 이원론에 근거한 창조적 인간관계는 톰이 마쉬농장의 홍수에 휩쓸려서 죽는 밤의 장면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삶과 죽음은 하나의 생명체 안에 공존한다. 자연의 위대한 생명력은 끊임없는 창조과정의 일부로서 반드시 소멸, 즉 죽음을 요구한다. 리디아가 톰의 죽음 앞에서, 그가 무한의 세계로 갔으며 그 곳은 인간의 지식과 변화 너머에 존재하는 절대적 세계임을 깨닫는다.

남편은 변화나 지식을 초월해서 절대적 경지에 무한과 나란히 조화한 채 누워있었다. 그녀가 그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이제 장엄한 추상적인 모습으로 잠시 눈에 보일 뿐,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존재가 되어 버렸다. 이런 그에게 감히 누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으며 누가 그에 관하여 말할 수 있겠는가? 삶에서 죽음으로 옮겨가는 짧은 이 순간에 잠시 모습을 드러낸 그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산 사람도 죽은 사람도 그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리라. 그는 산 자이면서 또한 죽은 자로서 범접할 수 없는 그 자신인 것이었다. “난 당신과 삶을 함께 해왔는데,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영원의 반열에 나 혼자 서 있게 되었군요.” 리디아는 자신이 홀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황량



해진 마음으로 말했다.(p. 291-292)

리디아가 톰의 죽음 앞에서 무한과 하나 됨을 느끼는 것은 개인의 창조적 자아실현의 출발점이 된다. 개인은 본질적으로 고립된 존재이며 이를 통해 개체성을 지님으로써 그 존재의 특성이 나타난다. 이 절대적 독립성 위에 사랑의 의지(will of love)가 발현될 때 창조적인 애정관계가 생겨난다.

톰과 리디아는 비교적 성공적인 남녀관계를 이룩한다. 절망에 빠져 있던 리디아는 문명사회에서 억압되었던 본능을 자연과 접촉함으로써 일깨우게 되고, 또 자연의 아들인 톰과 결혼하게 됨으로써 메마른 가지에 영혼을 불어넣듯 생명력을 되찾게 된다. 또한 그녀는 톰으로 하여금 나약한 남성의 힘을 회복시켜 그녀에게 당당히 다가올 수 있는 남성이 되도록 도와줌으로써 만족할만한 균형을 성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피의 친밀감 측면에서는 완전한 관계를 이루었지만 이것을 통해서 존재영역을 확대시켜 나가는 출발점으로는 삼지 못했다. 즉, 완전한 자아성취를 위해서는 존재영역을 넓혀 주변과의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하지만, 톰과 리디아는 마쉬농장의 테두리 속에서 가정생활에만 몰두한다. 이것은 존재범위의 확대로 나아가는 정신적인 발전이 중단되었음을 의미한다.

월과 애나가 살아가는 시대는 전통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가는 과도기 사회라고 볼 수 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인간관계는 더욱 복잡해지고, 극복해야 할 갈등과 대립의 요소는 점차 증가하기 마련이다. 제 2세대인 월과 애나도 1세대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된다. 하지만 제 2세대인 이 두 사람은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을 포기하고 각자의 한계 안에 머물러 버린 경우이다.

애나는 천성적으로 고집이 세고 자의식이 강한 소유자로서, 폴란드 태생의 어머니의 핏줄을 물려받아 다소 이질적인 특성을 가진 남성원리적인

속성의 여성이고, 월은 피의 친밀감의 혈통을 이어받은 여성원리적인 속성의 남성으로서, 이들은 상반된 두 극의 만남으로 이원론의 평형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월은 애나에게 있어 미지의 세계로 향한 탈출구이고, 그녀 역시 그에게 어둠의 알 수 없는 정열을 경험하게 해 준 존재이다. 그녀가 그를 기다린 것은 그를 통해서 자기 경험의 한계를 넘어 바깥 세계를 느끼고 싶어서이다. 월에게 애나와의 접촉은 어떤 특정한 여자와의 접촉이 아니라 자기 안의 어둠에서 나온 정열에 이끌려 자기 존재를 송두리째 드러내는 종교적 체험이다. 그들은 육체적 차원에서는 완전히 “탄소의 상태”에 있다. 외부세계에 대한 일정 정도의 동경심을 가졌던 톰과는 달리, 월은 육체적 쾌락에 안주하기를 처음부터 갈망한다. 애나에게는 월이 “삶과 실체의 핵심”이고, 그에게 그녀는 “삶의 요체이자 그를 소진시키는 불꽃”이다. 그들은 결혼을 통해 자신과 세상에 대해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되며, 월은 바깥세상과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별개의 세계에서 행동하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 한다. 그의 암울함과 집착이 애나에게는 두려움을 주고, 그녀의 독립성이 그에게는 적개심과 권위의 강요를 불러일으킨다.

월과 애나는 결혼하여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는 동안 외부 세계와 완전히 격리된 채 지극한 행복을 만끽한다. 시간이나 변화의 영향을 초월하여 그들 내부의 깊은 곳에서 올려오는 우주의 회전과 삶의 격동의 중심에 서 있는 느낌, 그것은 영원한 삶과 순수한 광명이 있는 침묵이 세계이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무한하고 항구적인 세계 속에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방안에는 차분함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것은 살아있는 영원의 핵이었다. 바깥 멀리 가장자리에서만 소음과 파괴가 계속되고 있을 뿐이었다. 이곳 중심에는 커다란 바위가 미동도 하지 않은 채 정지되어 있었다. 이

곳에는 시간을 초월한 흠 없는 정적만 있었다. 왜냐하면 그 정적은 언제나 같으며 변하지 않고 무진장으로 있기 때문이었다.

단둘이 시간이나 변화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함께 가까이 누워 있을 때면 그들은 더디게 회전하는 공간과 격동하는 삶의 격동의 중심에 있는 셈이었다. 그 모든 것의 깊고 깊은 내부에, 완전한 광휘와 영원한 존재와 찬양 속에 흡수된 정적이 자리잡고 있는 그 중심에 그들은 함께 있었다. (p. 182)

이 장면에 대하여, 사가(Keith Sagar)는 “그들의 침실은 우주의 중심이다”<sup>31)</sup>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그들 부부가 생명의 원천 속에 도달해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일시적인 육체적 만족의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 월은 일상의 현실세계로 돌아가기를 거부하고 애나와의 육체적 관계를 고집하고 창조적인 삶을 갖지 못함으로써 “하나 속의 둘”(Two-in-one)의 상태에 도달하지 못한다. 즉, 애나와의 육체적 관계에 과도하게 매몰된 나머지, 자기실현을 위한 현실의 세계를 외면함으로써 창조적인 자아의 성취에 실패하게 되고, 자기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공허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는 “혼자 설 수 없는 인물”이었던 것이다. 월의 이러한 무기력함은 애나의 독립심에 부딪혀 갈등을 일으키는데 애나가 임신했을 때, 그 갈등은 극에 달한다.

이렇게 위축된 월은 평소에 조각해 오던 목조판 “창조의 이브”를 쪼개어 불태워 버리게 되는데, 이 일은 월이 창조적인 자아성취를 포기했음을 뜻한다. 달래스키 역시 “목조판을 불태운 것은 자기과괴”<sup>32)</sup>라고 언급하며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애나는 월과의 내적인 갈등을 딛고 일어서서 임신과 출산의 과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이 애나를 승리

---

31) Keith Sagar, *The Art of D.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p. 52.

32) Daleski, p. 93.

자로 탄생시킨다. 애나의 승리는 임신 중 나체로 창조주를 향해 춤을 추는 장면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녀는 양손을 들어올리고 다시 춤을 추었다. 그의 존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녀는 춤을 추었다. 그녀가 난로 맞은편 방 저쪽에서 천천히 훌륭한 동작을 하고 있을 때, 난로의 불빛이 잠깐 그녀의 무릎을 바라보았다. 그는 문 가까이 어두운 그늘에 비켜선 채 꼼짝 않고 그녀의 춤추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그의 영혼이 그의 안에서 불타올랐다. 그는 몸을 돌렸다. 그 광경을 계속 지켜볼 수가 없었다. 그녀의 잘 생긴 다리, 온통 사납게 앞으로 빠져나온 머리카락, 그리고 하느님을 향해 들어올려져 있는 커다랗고 기이한 배가 그의 눈을 아프게 했다...그녀를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자기가 화형대에 올라있는 것처럼 괴로웠다. 그 이상한, 춤추고 있는 그녀의 힘이 그를 사로잡았다. (p. 223)

리비스는 이러한 애나의 행위에 대하여 “애나가 우울감과 자부심을 드러내는 장면으로, 둘 사이의 이상적인 관계를 파괴하고, 남편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도전적인 행위”<sup>33)</sup>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부부는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조화를 이루었으나, 정신적인 면에서는 월이 애나에게 완전히 압도당함으로써 생명주의적 이원론에 입각한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하지 못한다. 결국 월과 애나는 살아가는 동안에 완전하게 균형잡힌 남녀 관계를 성취하지 못한다. 그들은 이상적으로 조화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격렬한 투쟁과 갈등 속에서 안정된 생활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근원적인 결핍을 메우기 위해서 애나는 아이 출산과 같은 여성의 일에만 몰두해 버리고, 월 역시 애나를 멀리하고 교회 일에 헌신한다. 이들은 분리되고 고립된 채 각자 개인적으로 만족을 구한다. 애나는 홀로 자신의 충족

33) F. R Leavis, *D.H Lawrence: Novelist* (London: Chatto & Windus, 1955), p. 128.

감을 만끽하는데 반해 월은 축에서 빠져나간 바퀴처럼 중심을 잃고 절망적이 되어 무력함과 공허함에 빠지게 된다. 과거처럼 애나를 소유할 수 없게 되자 월은 자신에게 걸땀된 갈망을 해소시켜 주고 자신을 구출해 줄 다른 대상을 찾게 된다.

월은 애나에게서 채울 수 없었던 여성성에 대한 욕구를 링컨 성당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몰입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한다. 종교에 대한 그의 집착은 무의식의 세계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의 유약함을 교회에서 보상받고자 하는 행위이다. 그는 그 자신이나 그녀에 대한 생각에는 흥미가 없었고, 설교를 무시하고 인류의 위대성을 무시한다. 단지 교회에는 “두텁고, 어둡고, 진하고, 강력한 그 무엇이” 있고, “어두운, 이름붙일 수 없는 정서, 모든 신비스러운 열정의 정서” 를 교회를 통해서 얻고자 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애나에게는 “자기 자신을 사색한다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사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남편이 교회에서 느끼는 맹목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 반면에 “월은 자신의 자아라는 대상을 무시해 버리는 것이다.”

월은 애나와 함께 성당에 들어가는 순간에 “그녀” 라고 부르며 마치 “자궁” 에 들어 간 듯한 느낌을 받는다. 그가 이 세계를 절대적이라고 믿는 것은 애나와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무의식의 세계에 계속 머무르려 하는 것과 같다. 장엄한 성당의 모습이 월에게는 놀랍고 경이로운 신비의 세계처럼 보였으며, 완벽한 자궁과 같은 실체를 바라다보는 월의 온몸은 극도로 흥분된다.

약간의 황홀을 느끼며 그는 현관에 섰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의 가장자리에 선 것이었다. 그는 돌로 된 아름다운 입구를 올려다보았다. 그는 이제 완전한 자궁 속으로 들어갈 것이었다... 그는 문을 밀어젖혔다. 여기저기 기둥으로 받쳐진 거대한 어두운 공간이 그의 앞에 펼쳐졌다. 그 속에서

그의 영혼은 전율했고 그 등우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영혼은 뛰었고 거대한 교회 속으로 비상했다. 그의 육체는 그 높이에 몰입된 채 꼼짝 않고 서 있었다. 그의 영혼은 어둠 속으로 솟아올라 그 속에 사로잡혔다. 그는 어지러움을 느꼈고 위대한 탈출로 정신이 아찔하기까지 했다. 그의 영혼은 자궁 속, 그 풍요한 정적과 어둠 속에서 마치 황홀하게 탄생하는 씨앗처럼 떨어졌다. (p. 241)

이렇듯이 절정에 이른 환희는 결혼 초에 애나와 함께 누렸던 성적인 경험과 유사한데, 이는 월이 마치 여인의 몸속에 들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애나에게서 얻지 못하는 것을 성당에서 찾고자 하는 그의 내면상태를 보여준다. 성당 내부를 묘사함에 있어서 사용된 “어둠”, “여명”, “음울”, “침묵”, “무시간적인”, “영원”, “씨앗” 등은 전형적인 여성원리의 속성들이다.

애나는 처음에 월과 똑같이 장엄한 성당의 모습에서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이내 애나는 성당에 대하여 저항감을 갖는다. 월이 성당에 여성의 성을 붙여준 탓도 있지만 보다 큰 이유는 여성성으로 충만한 성당의 절대성 속에 편입되기 보다는 “자유롭고 완전한 남성성의 움직임”이 있는 세계를 더 갈망하기 때문이다. 즉, 월이 성당을 통해서 느끼게 되는 황홀감은 개별성과 개성이 상실된 월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애나는 영원과 절대, 전체를 거부하고, 시간과 개체, 다수의 개념으로 나타나면서 남성원리적인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애나의 갈망은 작은 석조상을 발견함으로써 해결된다.

이 교활하게 생긴 작은 얼굴들이 마치 무언가를 좀 더 잘 알고 있는 양 성당의 장엄한 물결 밖으로 빠끔히 내다보고 있었다. 인간의 환상에 반박하고 있는 이 작은 괴물들은 성당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눈짓과 결눈질로 교회라는 위대한 개념

이 빠뜨리고 있는 많은 것들을 암시하고 있었다. ‘아무리 이 안에 많은 것이 들어 있다고 해도, 그들이 이 안에 담지 못한 것 또한 많이 있지’ 하고 그 작은 얼굴들은 말하고 있었다. (p. 244)

이런 세계가 절대적이라고 믿고서 몰두하고 있는 월의 환상을 애나는 여지없이 깨뜨리는데, 이는 그녀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으로 월이 갖지 못한 현실감과 자괴감에서 비롯된다. 이 작은 괴물상이 상징하는 것은 “분리된 개체의 의지” (separate wills), “분리된 활동” (separate motions)으로써, 여성성의 구현체인 성당이 정적인 여성 원리를 추구한다면, 이 괴물상은 성당이 나타내는 유일성에서 벗어나 분리되고 독립된 개체가 되려는 동적인 남성원리를 지향한다. 애나는 여성이지만 남성의 속성을 갈망한다. 왜냐하면 애나는 성당 밖에 있는 새들과 같이 하늘을 자유롭게 날고 싶기 때문이다.



새가 그 가슴을 들어올리고 그 몸을 솟구침으로써 바라지 않는 결말을 향해 휩쓸어가는 바다의 출렁이는 물결에서 벗어나듯 자신을 솟구쳐 올리고 싶었다. 날개 달린 새처럼 날아올라서 명백함이 있는 탁 트인 공간으로 훨훨 날고 싶었다. 이 굳어버린 격렬한 움직임에서 솟아올라서 공중에서 격리된 반점으로 이리저리 움직이고, 다시 가라앉기 전에 보고 응답하고 그것이 실려갈 방향을 선택하거나 찾아내고 싶었다. (p. 243)

애나가 성당 밖에 있는 자유로운 새를 갈망하는 것은 월이 성당을 통하여 자신에게 결핍된 여성성의 충족을 얻으려는 노력과 유사하다. 월이 여성성의 충족을 원하듯이 애나도 역시 남성성에 대한 갈망을 지니고 있다. 남성의 속성에 대한 애나의 욕구는 월이 그녀에게 충분한 남성성을 제공해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월은 스스로에게서 여성성의 충족만을 원했지 아내에 대해서 남성으로서 해야 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 것이다.

성당 방문으로 인한 두 사람의 대립이 있는 후, 월은 더 이상 대립적이지 않고, 애나에게 완전히 굴복되어 살게 된다. 그가 여전히 상징적으로 애착을 갖는 교회에 대해, 또 그의 허위에 대해 애나가 심하게 비난을 할 때, 아내에 대한 그의 분노는 그의 존재 전체를 찢어버리는 것 같이 강렬해지고, 그의 이러한 어둡고 파괴적인 분노는 그들 사이에 일종의 긴장상태를 조성한다. 애나는 차츰 물러서게 되고, 월의 발작에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한다. 결국, 계속되는 임신과 육아를 이유로 여성으로서의 가정 내 생활에 안주하고 만다. 그녀는 더 이상 미지의 나라로 존재의 범위를 확대하기를 희망하는 남성원리적인 인물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그녀의 집 문은 무지개의 아치 밑에 열려있고, 그 문턱은 위대한 여행자인 태양과 달이 지나가는 그림자를 여전히 반영하고 있으며, 집에는 아직도 여행의 반향이 가득차 있다. 그녀에게는 이 세계 너머의 다른 세상에 대한 동경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작업은 다음 세대로 넘겨지고 그녀의 창 너머에 존재하던 무지개는 미지의 것을 갈망하는 염원을 담아 또 다른 순례자를 기다리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세대의 애나와 월은 육체적인 합일을 이룩하지만 상대방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파괴적인 속성을 띤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 이는 월의 자아가 독립에 실패한 탓으로 자신의 의지를 상대방에게 강요하고 마침내 아내의 창조적인 자아성취까지 방해한 결과를 낳고 있다. 이들의 애정관계는 육체적 사랑의 단계에서 정신적 이해의 상태로 이행되지 못하고 미진한 부분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결국 이들은 바퀴와 축이 이룩해야 하는 조화와 균형을 획득하지 못하고, 완전히 분리되어 버린 바퀴와 축처럼 원활하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제 2세대인 월과 애나는 혈적 친밀감의 측면에서는 제 1세대의 건강함을 따를 수



없지만, 존재범위의 확대에서는 한 단계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지, 월의 사회적 활동은 정신과 육체가 조화를 이룬 균형의 상태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속의 둘”의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제 3세대인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도 예외없이 전대의 브랑웬가의 전철을 밟는다. 마쉬농장에 홍수가 밀어닥치고, 1세대인 톰 브랑웬이 사망함으로써 전통사회는 현대문명에 의하여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한다. 브랑웬가의 여성들이 바라던 외부세계에 대한 바람은 어슐라에게 전가되어, 개인과 사회에 대한 어슐라의 인식이 더 깊어지고, 현실과 사회에 대한 그녀의 비판도 더욱 명철해지기 시작한다.

제 3세대인 어슐라는 자신이 창조적 자아의식의 인물이 되기 위해서 렌스키 가문의 새련된 지성과 브랑웬 가문의 감각적 자연성이 어떻게 혼합되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인물이다. 2대에 걸친 상반된 혈통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어슐라에게는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속성이 하나로 융합되어 나타나지만 자아의식의 성취가 전통으로 전승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이 처해있는 역사적 현실에서 스스로의 새로운 의식을 발전시켜야만 한다. 그녀의 자아실현 의식의 확립이 톰의 세대나 아버지 월의 세대보다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은 그녀가 살아야 할 시대적 상황이 산업사회의 반인간적인 기계주의의 논리 때문이다.

어슐라가 추구하는 자아의 탐구는 단지 정신적인 수준에서만 이루어질 성질이 아니다. 그녀는 감각적 욕망의 충족 뿐 아니라 교육에 의한 자신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갈망하며 동시에 그녀 내부에 존재하는 자기중심적 이기심으로 이루어진 허위의식을 극복하려고 한다. 그녀는 성인이 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을 지는 독립된 존재로서의 자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사회적 관습의 틀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보인다. 이는 로렌스가 말한 새로운 남녀관계의 정립을 모색하는데 있어 바탕이 되는 요

소로, 기존의 남녀관계의 틀을 과감히 벗어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어슐라가 미지의 세계를 동경하면서, 성탄절과 부활절이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 자신의 실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품을 때, 현역 공병장교인 안톤 스크레벤스키를 만나게 된다.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를 처음 보는 순간에 그를 통해 강렬한 외부 세계의 분위기를 느낀다. 그에게서 풍기는 매력은 남성다움과 강한 자아의식과 신사다운 태도 때문이다. 그녀는 자아를 강하게 주장하고 확대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도 그녀에게 자신의 자아를 주장하고 그녀와 함께 자아를 확대해 가기를 바란다. 하지만 스크레벤스키는 군인으로서 자신의 임무에만 충실하는 남성원리의 남성이다.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스크레벤스키는 미지의 세계를 갈망하면서 자아를 키워 나가는 어슐라와는 대립된 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이원론에서 양극성에 해당하게 된다. 즉, 어슐라의 개인적 자아와 스크레벤스키의 사회적 자아가 충돌을 일으킨 것이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지나치게 사회적 자아만을 추구하려는 스크레벤스키와는 반대로 어슐라에게는 사회란 단지 개인에 대한 부차적인 의미일 뿐 무시해도 괜찮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회적 자아를 무시한 개인적 자아만으로 생활해 가려는 어슐라의 태도는 스크레벤스키가 그녀에게 청혼했을 때도 잘 나타나고 있다. 어슐라는 결혼이 자기들의 관계를 더욱 마비시키고 개인 생활과 자유를 파괴한다고 생각한다. 어슐라는 “보다 커다란 자유를 요구하고, 스크레벤스키와의 관계가 그녀에게 가하는, 사회라는 굴레의 작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요구” 하는 것이다. (p. 497) 그녀가 만약 스크레벤스키와 결혼한다면 그는 사회적 자아만을 추구할 것이다. 그러면 그녀 또한 사회적 존재로서의 아내가 되어 생명 없는 복잡한 현실 사회의 일부분이 될 것이며, 자신의 개인적 내부 생활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릴 것이다.

어슐라가 자신에겐 부모도 애인도 어떠한 국가나 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외치는 것은 결국 이와 같은 사회적 관계들이 기계적 획일성을 통해 개인을 구속하고 개성과 자유를 파괴시킨다는 의미이다.

그녀가 스스로 탈출할 수만 있다면! 그녀 자신을 감정에서, 자신의 몸뚱이에서, 그녀가 접촉하는 세상의 커다란 방해물인 아버지, 어머니, 애인 그리고 모든 친지로부터 해방시킬 수만 있다면!

어슐라는 고통으로 완전히 지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되풀이해서 중얼거렸다. “나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애인도 없어. 그리고 물질세계에서 할당받는 곳도 없어. 나는 벨도버 사람도, 노팅검 사람도, 영국사람도 아니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그것들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 나는 그물에 얽매어 있어.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실체가 아니야. 나는 그것들을 뚫고 나와야만 해. 마치 도토리가 비실재적인 껍질을 뚫고 나오듯이.” (p. 53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이러한 어슐라의 생각은 실제로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기계적 산업주의와 제도적 획일성을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로렌스가 주장하는 개인과 사회의 조화라는 이원론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어슐라는 그녀 자신의 자유를 실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회와의 어떤 실제적인 관계를 결여하고 있다. 개인을 떠난 사회도, 사회를 떠난 개인도 존재할 수 없다는 로렌스의 주장처럼,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과 사회라는 이원성의 부조화는 결국 작가가 원하는 참된 삶이 아닌 것이다. 결국 개인을 사회라는 거대한 조직의 하찮은 부속물로 여기고 지나치게 사회적 자아만을 추구하려는 스크레벤스키나 사회를 불신하여 등지고 개인적 자아로만 빠지려는 어슐라의 태도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통합된 이원성의 조화를 깨뜨리고 만다. 이것이 그들의 관계를 궁극적 파국으로 몰고가는 중요한 원인으로 나타난다.

스크레벤스키가 그녀에게 환멸만을 주고 남아프리카로 떠난 후, 어슐라의 자아성취를 위한 노력은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 그 범위가 확대된다. 그녀는 존재의 범위의 확대를 위하여 현대 여성으로서의 창조적 행동 범위를 넓히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위니프레드 잉거 선생과의 만남인데, 그녀의 활달하고, 자존심이 강하고 우아한 성품으로 어슐라는 그녀와 동성연애를 하게 된다. 하지만 잉거는 지성의 힘에만 의존하는 물질주의자들의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그의 삼촌인 톰(1세대 톰과는 동명이인)과 결혼을 시키게 된다. 이 두 사람은 인간의 본능과 개성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기계에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교사생활을 통한 경험의 확대도 어슐라의 존재의 범위의 확대에 큰 역할을 한다. “감옥같은 학교”를 통해서 그녀가 본 것은 기계화, 집단화 되어있는 학교와 체제였다. 그녀에게 학교는 어둡고 칙칙했고, 명령과 복종에 익숙해 있는 아이들에게 인간적인 만남을 기대할 수가 없었다. 학교를 떠나서 경험하게 되는 대학도, 현대문명의 가치관이 팽배해져 있어서, 그녀에게는 심한 좌절과 절망만을 안길 뿐이다. 그녀는 “대학은 가장 비열하고 야비한 곳으로, 장삿속으로 전락한 황폐하고 값싼 신전”에 비유하면서 대학의 타락을 강도 높게 비난하는 것이다. 로렌스는 어슐라의 방황을 통해서 현대사회의 획일화, 기계화, 물질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남성의 세계에서 자기완성의 성취에 실패한 어슐라는 다시 돌아온 스크레벤스키와 상호 평형을 이루는 창조적인 관계를 이루고자 하나, 그는 활력이 넘치는 생명체라기보다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훌륭한 육체를 지닌 하나의 죽은 영혼에 지나지 않는다. 어슐라가 그 동안 추구한 것은 자아의 독립과 완성인데, 이것은 두 사람의 사랑의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슐라는 스크레벤스키와의 사이에서 일어

나는 창조성이 결여된 육체관계에서 점차 절망을 느낀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죽음의 싹을 포함하고 있었다. 육체적 접촉이 있을 때마다 그에 대한 그녀의 고통스런 욕망, 아직 한 번도 그로부터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녀의 고통스런 욕망은 더욱 강렬해졌고, 이에 비례하여 그녀의 사랑은 점점 더 절망적이 되어갔다. 매번의 육체적 접촉 후 그녀에 대한 그의 광란적 의존성은 깊어만 갔고, 곧게 서서 그녀를 스스로의 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은 희박해져만 갔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그녀의 부속품에 불과하다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다. (p. 507)

영혼과 육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원하는 어슐라에게 있어서 스크레벤스키의 관계는 영혼이 없는 육체관계이며 이는 곧 파멸을 의미한다. 달빛이 쏟아지는 링컨 해변에서 완전히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격렬한 사랑을 나눈 후, 스크레벤스키는 또 한 번 어슐라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방황의 나날을 보내게 된다. 스크레벤스키는 어슐라를 다시 만나면 자신을 더욱 더 파괴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어슐라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꿈이 깨어진데 대해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두 사람은 결혼에 이르지 못하고 헤어지는 것이다. 이는 곧 남성원리와 여성원리의 균형을 이루어내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스크레벤스키가 인도로 떠난 후 어슐라는 이원적으로 상반된 스크레벤스키와의 자유분방한 사랑으로 임신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된다. 자아성취의 끝없는 여정에 지칠 대로 지친 어슐라는 그 동안의 의미있는 삶을 포기하고 적당히 현실과 타협하여 그와 함께 인도로 떠날 생각을 한다. 그러던 4월의 어느 날, 실물인지 환각인지 알 수 없는 비가 오는 날, 숲속을 거닐다가 위협적으로 그녀에게 몰려드는 말 떼를 만나게 되는데, 그녀는 가까스로 그 말 떼를 피하면서 극적인 자각의 계기를 갖게 된다. 여기서 그녀가 말 떼를 만나는 장면은 다분히 상징적이다. 그녀가 말을 피해

나무 위에 올랐다가 떨어지는 것은 모든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을 암시한다. 즉, 말은 로렌스의 작품세계에서는 남성의 생식력 또는 인간의 생명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녀는 말 떼의 환상에서 자신의 본능의 세계, 즉 내면 세계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이러한 체험은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새로운 탐험을 시사하고 있다고 하겠다.

아니, 그녀가 앞에 있는 미지의 세계를 내다보았을 때 그녀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이라곤 신선하게 비추는 햇살과 연기처럼 땅에서 위로 뻗은 불가해한 나무들밖에 없었다. 그것은 미지의, 탐구되지 않은 세계였다. 구세계와 신세계 사이를 흐르는 공허한 공간인 어둠을 건너서 홀로 그곳에 상륙한 미발견의 세계였다. (p. 539)

어슬라는 숲속에서 말들의 추적을 받고 집으로 돌아와서 약 2주 동안 심한 정신적 고뇌와 동요 속에서 앓아눕는다. 로렌스의 문학에서 자연의 숲은 인간의 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써, 그녀는 그러한 환상으로 인해 스크레벤스키와 지닌 정열의 세계에 대한 반성의 시간을 갖게 되며, 이원적인 평형이 무너진 육체적 쾌락의 탐닉으로는 자기실현적인 삶을 완수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이 기간 동안에 그녀는 태아의 유산까지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은 그녀에게 있어서 재생을 위한 서곡임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무지개는 대지 위에 우뚝 솟아 있었다. 그녀는 잘 알고 있었다. 타락한 땅 위를 딱딱한 비늘을 쓰고 기어다니던 천박한 인간들이 여전히 살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무지개는 그들의 핏줄을 연결하는 다리요, 그들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었고, 그러면 그들은 자신들을 고립시키며 덮고 있던 딱딱한 껍질을 벗어던지고 새롭고 깨끗한 몸뚱이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다음엔 새로운

씩이 솟아나게 하고 성장하며 하늘과 빛과 바람과 깨끗한 비 속에서 자신들을 드러낼 것이란 진실을. 그녀는 무지개 속에서 땅의 새로운 건축물을 보았고 집과 공장들이 넓고 부서지기 쉬운 타락이 깨끗하게 치워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우러러 보이는 하늘에 어울리는 진리의 생생한 구조 속에 지어진 세상을 보았다. (p. 540)

어슐라는 자아와의 치열한 대결과 거둬나는 고통을 거침으로써, 무지개로 상징되는 새로운 삶의 약속을 실천할 수 있는 인물로 태어난다. 그러기 위해서는 껍질을 깨고 오직 알맹이만 남아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한 그녀는 육체적 욕망의 만족을 얻는 것만으로는 개인 뿐 아니라 인간 전체에게도 건강한 생명력과 유대감이 얻어지지 않음을 알게 된다. 어슐라는 현대인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문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했고, 그 가운데 진정한 자기됨이 무한히 빛나는 승리라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 순간 벨도우버의 더러운 지붕 위에 솟아 있는 무지개는 영과 육, 정신과 지성,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자연과 문명을 이어주는 가교라 할 수 있고, 인간 삶의 원리라고 살 수 있는 이원론적 대립과 갈등을 균형과 조화로 인도하여 결국에는 창조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낙관적인 미래를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무지개의 상징성에 대해서 리비스는 “무지개가 상징하는 희망은 일시적인 감정이며, 작품이 제기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sup>34)</sup>는 견해를 보이고 있고, 허프는 이 작품에서 “무지개의 등장을 가능케 해 줄만한 근거가 없다”<sup>35)</sup>는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스미스는 무지개의 비전을 “어슐라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한 화해”<sup>36)</sup>라고 말하였고, 칼은 “무지개가 화해와 성취의 상징”<sup>37)</sup> 이라고 주장하며 긍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다. 결국, 남성

---

34) Leavis, p. 170.

35) Hough, p. 71.

36) Frank G. Smith, *D.H. Lawrence: The Rainbow* (London: Edward Arnold, 1979) p. 56.

성과 여성성의 조화를 통한 창조적인 인간관계의 형성은 브랑웬가의 3대에 걸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남성성과 여성성의 균형을 찾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는 어슐라라는 인물을 내세움으로써 낙관적인 미래를 예견하고 있으며, 남성성과 여성성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을 무지개로 상징하는 것이다.



---

37) F.R Karl & M. Magalaner, *A Reader's Guide to Great Twentieth Century English Novels*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72), p. 177.



## V. 결론

로렌스는 19세기에 이르러 비약적으로 발달한 현대문명의 과도한 주지주의와 과학주의가 오히려 인간의 자연적 본능을 무시하고 자연 본래의 원초적 생명적인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하면, 문명, 정신, 사회의 방향으로 치우친 빅토리아 시대의 편향적인 생명관이 자연, 육체, 개인의 개치를 폄하함으로써, 인간의 본래적인 삶의 모습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대문명사회의 병폐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자연성으로서의 여성원리와 문명성으로서의 남성원리의 끝없는 투쟁 속에서 조화로운 평형상태를 모색하려는 이원론적 생명주의를 그의 문학의 중심적 이념으로 설정하였다.

우주 만물은 두 개의 상반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상반된 요소들이 갈등과 투쟁을 하면서도 각자의 고유한 독립성을 유지한 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이룬다는 것이 그의 이원론의 요체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물에는 대립과 갈등이 상존하지만, 이 대립과 갈등은 서로를 쓰러뜨리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어서, 오히려 생명력이 있는 창조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 극은 서로의 관계에서 독립을 유지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두 개의 독립된 개체는 합쳐서 “하나 속의 둘”(Two-in-one)이 된다.

『무지개』에서도 현대문명이 유입되면서 인간관계가 보다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 1세대는 “피의 친밀감” 측면에서는 완전한 부부관계를 이루었지만, 마쉬농장을 벗어나지를 못했다. 탐은 리디아의 자기확대적인 개별성에 대해 지나친 두려움을 가짐으

로서, 정신적인 세계로의 발전으로 나아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이 가지는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과 이질적인 요소에도 불구하고 “피의 친밀감”에 근거한 전통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균형과 조화를 이룬 무지개를 형성해내고 있다.

제 2세대는 농경사회가 점차 근대화되는 과도기의 남녀관계로서 자아의식의 확대문제로 많은 갈등이 제시된다. 그들은 자아투쟁을 계속 벌이다가 월은 애나의 자아에 굴복당하고 만다. 그래서 이들 부부는 감각적인 관계로 빠져들게 되고 월은 작품 후반부에서 사회 활동에 참가하지만, 진정한 존재범위의 확대에는 이르지 못한다. 이들 부부는 정신이 결여된 육체적 결합만이 있기 때문에 왕관이 상징하는 균형의 관계를 이루지는 못하고, 결국 더욱 불안정하고 제약적인 무지개를 맞게 된다.

제 3세대인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의 관계는 이전 세대 보다 더욱 더 복잡한 양상을 나타낸다. 시대적으로 기계문명이 발달한 현대사회이므로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버린 사회에 인간마저 기계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그들은 영육간의 갈등을 벌이다가 스크레벤스키가 완전히 어슐라에게 압도되어 싸움을 통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 어슐라와 스크레벤스키를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결핍된 육체적 관계는 창조적인 삶을 성취할 수가 없음을 보여준다. 로렌스 자신이 겪었던 불안감과 고통이 어슐라를 통해서 그대로 묘사되고 있고, 여성의 자아확대 문제를 시대적 상황에 맞게 극화시켜 묘사했다.

작품에 투영된 로렌스의 이원론적인 문학사상이 현대에 이르러서도 각광을 받는 이유는 아마도 최근 서양에 불고 있는 동양사상을 고려하였을 때, 그의 문학이 가지는 현대성에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양극성의 균형을 통한 인간완성이라는 그의 이원론도 나름대로 한계를 가지고 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즉, 문명의 역기능에만 과도하게 집착한 나머지 문

명이 가지는 순기능적인 측면을 무시하고, 자연 편향적인 문학사상으로 귀착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곧 그가 말하는 균형의 원리를 무시하게 되는 결과가 된 것이다. 사회주의 비평가로 알려진 코드웰 역시, 지성적 사고와 자연적 본능은 상호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고양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로렌스는 이를 대립관계로 볼뿐만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고도문명사회의 감수성으로 창작활동을 하면서, 원시회귀적인 생명관을 부르짖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sup>38)</sup>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렌스가 당대 최고의 문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당대 사회문제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작가적 노력에 기인할 것이다. 그가 제시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는 무지개으로써, 제 1-2세대와는 다른 완전한 자아성취를 향한 창조적 관계를 향하여 새롭게 일어서는 어슐라의 희망의 상징이다. 『무지개』에 나타난 무지개 이미지를 모이나한은 “무지개가 인간 삶의 희망적인 변화를 예언적으로 상징하고 있다”<sup>39)</sup> 라고 주장했다.

로렌스의 이원론적 세계관과, 상호간의 자아실현을 전제로 한 생명력이 넘치는 남녀관계의 실현은 단지 문학작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실제 원리이고 나아가서 인생의 원리이기도 하다. 21세기인 현대에 이르러서도 로렌스의 작품이 다양한 각도로 연구되고 있는 것도 그의 작가적 역량과 문학사상이 그가 살았던 한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전 시대를 관통하는 실제 삶의 원리가 되고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8) C. Caudwell, "D.H Lawrence: A Bourgeois Artist," *The Critical Performance: An Anthology of American and British Literary Criticism of Our Century*, ed., S. E. Hyman (New York: Vintage Books, 1962), p. 165.

39) Moynahan, p. 54.

# BIBLIOGRAPHY

## I. Text

Lawrence, D.H. *The Rainbow*. Ed. Jung-mae Kim, Seoul: Tamgudang, 1998.

## II. References:

Caudwell, C. "D. H Lawrence: A Bourgeois Artist." In *The Critical Performance: An Anthology of American and British Literary Criticism of Our Century*. Ed. S. E. Hyman. New York: Vintage Books, 1962.

Chambers, Jessie. *D. H. Lawrence: A Personal Record*. London: Jonathan Cape, 1980.

Daleski, H. M. *The Forked Flame: A Study of D. H. Lawrence*. London: Faber and Faber, 1965.

Draper, R. P. *D. H. Lawrence: The Novels*. Boston: Twayne Publishers, 1964.

Hough, Graham. *The Dark Sun: A Study of D.H. Lawrence*. Aylesbury: Compton Printing, 1965.

Inglis, A.A.H. *D.H. Lawrence: A Selection from Phoenix*.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79.

Karl, F. R. & Magalaner, M. *A Reader's Guide to Great Twentieth Century English Novels*.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72.

Lawrence, D. H. "Letter to Edward Garnett, 5 June, 1914". In *Selected*

- Literary Criticism*. Ed. Anthony Beal. London: Heinemann Educational Book Ltd, 1982.
- Lawrence, D. H. "Education of the People." in *Phoenix: The Posthumous Papers of D. H. Lawrence*. Ed. E. D. Macdonald. London: Heinemann, 1961.
- Lawrence, D. H. *Reflections on the Death of a Porcupine and Other Essays*. Bloomington and London: Indiana UP, 1963.
- Lawrence, D. H. "Study of Thomas Hardy." In *D.H Lawrence: A Selection from Phoenix*. Ed. A. A. H. Inglis. London: Penguin Books, 1977.
- Lawrence, D. H. "The Crown." In *D.H Lawrence: Phoenix II*. Ed. Warren Robert and Harry T. Moore. London: Penguin Books, 1968.
- Leavis, F.R. *D. H. Lawrence: Novelist*. Middlesex; Penguin Books, 1955.
- Moynahan, Julian. *The Deed of Life*. Princeton: Princeton UP, 1963.
- Mudrick, Marvin. "The Originality of *The Rainbow*." In *D.H Lawrence: A Collection of Critical Essays*. Ed. Mark Spilka. Englewood Cliffs, N. J.: Prentice-Hall, 1963.
- Niven, Alastair. *D.H Lawrence*. London: Cambridge UP, 1979.
- Sagar, Keith. *The Art of D.H Lawren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6.
- Smith, Frank G. *D.H. Lawrence: The Rainbow*. London: Edward Arnold, 1979.
- 양 영 수. 『로렌스문학의 해부』. 서울: 한신문화사, 1994.
- 양 영 수. 『영문학의 원류를 찾아서』. 제주: 제주대학교 출판부, 1997.
- 황의방, 진영중. 『무지개』. 서울: 한길사, 1992.

<Abstract>

DUALISM IN D.H LAWRENCE'S *THE RAINBOW*

Boo Joon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Yang, Young-Soo

This dissertation is the study of the dualism of civilization and nature, spirit and flesh and male and female as it appears in the works of D. H. Lawrence.

Lawrence has been called a 'vitalist' when discussing his literary thoughts. He mentioned that modern civilization's intellectualism and science had ignored human beings' natural instincts and destroyed original vitality for human relationships. Against this social streams, he insisted that human beings overcome this social blind spot by building human relationships based on true vitality. His vitalism shows special features through dualism.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6.

The key to understanding Lawrence's concept of dualism is that all things have the opposite forces in themselves, but the opposite elements achieve complementary relation, keeping each separateness, despite their conflicts and struggles.

For example, in his essay "Study of Thomas Hardy", Lawrence explains the above-mentioned opposite forces in detail. He classifies love, light, change as the attributes of the male principle; and law, darkness, origin as those of the female principle. The relation between male and female principle is not a fusing of the two into one but a complementation of the one by the other. Therefore, harmony and balance resulting from conflicts is the main theme in Lawrence's literary works. To establish an ideal relationship, Lawrence embodies the conflict and harmony of spirit and flesh, male and female in opposing relations between Nature and civilization.

The major theme in Lawrence's works, the relationship between men and women is closely connected with self-fulfillment. The way for a vital person to be a whole-being and to achieve a satisfying life is to discover "complete ego". For example, the heroes and the heroines of *The Rainbow*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of "blood-intimacy" and extension of "a range of being" for the achievement of a perfected self-fulfillment. These contribute to the balance and harmony of male principle and female principle. In *The Rainbow* nobody achieves the fulfillment of "blood-intimacy" and the extension of

"a range of being" which they aimed. But the characters of *the Rainbow* make progress towards a perfected self-fulfillment in a slight way by widening their experience.

Specifically, in the first generation, Tom and Lydia achieved a creative relationship on the side of blood-intimacy. However, they don't transcend the boundaries of the Marsh Farm. In the second generation, Anna meets Will in the hope of enlarging her experience beyond the Marsh Farm. However, their spiritual contact is lost because of their self-seeking and physical love. Anna is unfulfilled and lives a comfortable life in Cossethay relinquishing the adventure to the unknown. In the third generation, Ursula wants to extend herself to the maximum. Though Skrebensky brings her a strong sense of the outer world, he can't be a suitable partner for Ursula. So they can't establish an ideal human relationship any more. But Ursula's rainbow implies the prelude of revival which will be achieved in the future.

Lawrence, who was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devastation of humanity caused by excessive industrialism and modern civilization, tried to illustrate the tragic features of civilization to readers by showing the machine-like lifelessness of many of his characters in his literary works, which is intended as a ringing alarm bell for modern civilization.